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2026년 4월 7일 초판 발행

펴낸이 강요섭 김광옥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교정 김미선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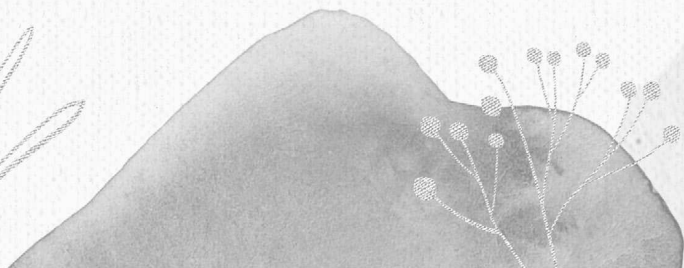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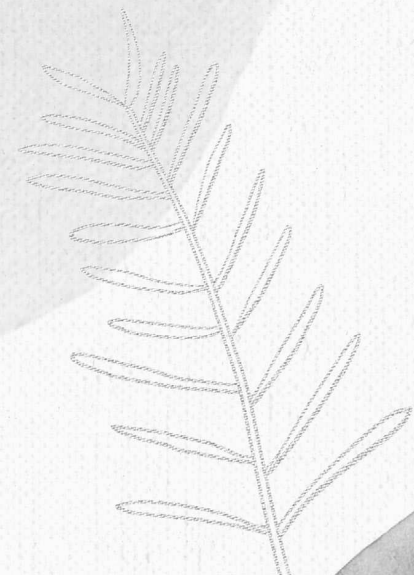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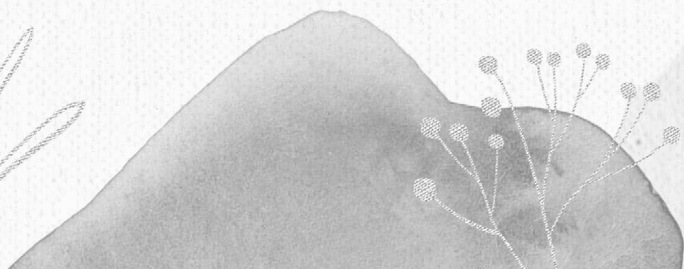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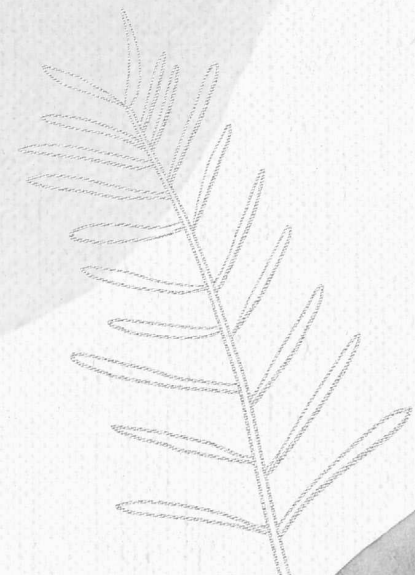


## 차례

나훔 1:1-15

나훔 2:1-13

나훔 3:1-19



##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 1:1-15

1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2 여호와  
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  
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  
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와 길은 회오리바  
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4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5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느도  
다 6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7 여  
호와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9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피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0 가시덤불 같이  
영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11 여호와께 악을 피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  
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13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14 나 여호와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 15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1-8)

세 장으로 구성된 나훔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와 나훔은 100-1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요나의 후편과도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거리를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 곤룡포(왕의 옷)를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유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



의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넙쿨도 아끼면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막이 내리지 않고, 연극이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아시리아 제국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사마리아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시리아 제국은 하향곡선을 긋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동의 패권자였습니다.

본문 1-8절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크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천명합니다.

#### (1)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엘고스’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고스가 예루살렘 서남쪽의 작은 마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니느웨 근처의 마을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엘고스가 갈릴리 근처의 작

은 마을이라면 ‘가버나움’을 뜻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인데, ‘나훔’이 ‘위로’라는 뜻이니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나훔 선지자가 가버나움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엘고스가 어디를 뜻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같이 모두가 다 아는 곳에서만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안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소유가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은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2) 여호와께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께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질투’는 누군가가 내 영역 속으로 들어와서 내게 속한 것을 가져갈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 배우자는 내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배우자의 마음을 빼앗아

가면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민족에게 그들의 고유한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침입해 와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빼앗아 갔고, 또 유다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복하다’라는 말은 ‘양갓음하다’, ‘벌주다’, ‘원수갚다’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니느웨(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하여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살기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당신에게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3a)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결코 죄를 벌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는 니느웨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요나 시대에 니느웨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심판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1-2개월이나 1-2년이 아니라 100년도 넘게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이신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3b-5) 여호와와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이 ‘회오리바람과 광풍’이라고 하십니다. 태풍이 강하게 불면, 간판도 떨어지고, 나무가 부러지거나

뿌리가 뽑히기도 합니다. 오래전 본 영화인데 미국 토네이도 바람을 다룬 영화 ‘트위스터’에서는 소가 회오리바람 속으로 빨려 올라가고, 심지어 거대한 유조차 트럭도 빨려 올라갔습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바람이 휘몰아치면 속수무책입니다.

또 바다와 강도 말리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의 예는 출애굽 때의 홍해를 가르시고 말리신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말리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뭄, 지진, 해일 등등의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이고, 한없이 작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지만, 구원하는 도구도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마르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원, 그 자체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눈물의 골짜기의 연속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도 함께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7) 여호와를 선히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야시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주만물에 대한 주권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쏟아부으시는 분은 아니심을 강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과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할 만한 곳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선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오히려 굶주린 사자 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충분히 피할 곳이 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9-15)

9-15절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 증거합니다.

(9)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피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1) 여호와께 악을 피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니느웨가 무슨 계획을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무효화시키고,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이크 타이슨

은 1980-90년대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입니다. 그에게 복싱과 예절을 가르쳐 주었던 양아버지(커스 다마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무적이었습니다. 타이슨이 남긴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입(얼굴)에 펀치를 맞기 전까지는(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입니다.

니스웨가 하나님의 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모든 계획이 사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스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 가시덤불 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엉클어진 가시덤불과 술에 취한 사람과 같아서 결국은 불에 타 버린 마른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엉클어진 가시덤불은 풀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취한 사람은 온전함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불에 타버린 마른 지푸라기는 회복 불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니느웨가 다시는 유다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다’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니느웨(아시리아 제국)가 괴롭혔지만, ‘니느웨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통해서 유다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더 이상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손이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신다고 합니다. 사실 본래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파 놓겠다고 하십니다. 즉 아시리아 제국, 니느웨라는 존재에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네가 가볍기 때문이다’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에다 술을 따라 마실 때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하다, 가볍다'의 뜻입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니스웨보다 더 무거운 도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푸라기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니스웨에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15) 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유다를 그토록 괴롭히던 니스웨(아시리아 제국)가 물러가고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니스웨에게 망하고, 유다도 니스웨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짐은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것의 출발과 마침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의 출발과 마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  
100-150년 후 니스웨의 모습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목자가 찾아낸 잃은 양과 같았고, 또 여인이 찾아낸 잃은 드라크마와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간 후에 그들은 다시 목자를 거부한 양과 같았고, 다시 여인의 손안에 있기를 거부한 드라크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질을 해도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신앙은 한순간 회복된 것으로 마쳐지지 않고, 회복된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신앙의 선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택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사시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 백 수십 년이 지난 후의 니느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한순간의 점으로 끝나고 선이 되지 못함으로, 온 나라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타산지석과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의 선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를 수 놓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는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마을, 엘고스 출신의 나훔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극복해야 할 약점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부분을 기다려주셨으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셨습니까?
3.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은 언제이었습니까?
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2

##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나훔 2:1-13

1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2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악탈자들이 악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3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4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5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6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7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8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9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10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낮이 빛을 잃도다 11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12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13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아시리아의 멸망 예고와 유다의 회복 약속(1-2)

나훔 1장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경고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 2장은 아시리아가 받게 될 심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본문의 ‘너’는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것이며 ‘파괴하는 자’는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주체를 뜻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대와의 연합을 통해 아시리아를 공격하여 B.C. 612년 아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궁극적인 주체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악탈자들이 악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아시리아를 직접 파괴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잔인한 약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정도에 지나친 약탈과 압제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시리아에 의해 짓밟혔던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파멸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과 징계를 위해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야곱의 영광’ 곧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 아시리아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고통을 인내해 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소망 중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아시리아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힘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단지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 부여받은 힘이에요 자리가기 때문입니다. 강하다고 교만해져 오히려 약자를 함부로 대한다면 오늘 아시리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아시리아를 공격해 오는 군대의 모습(3-5)

이제 3-5절까지는 아시리아를 침략해 오는 군대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진군해 오는 군인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붉은 제복을 입었습니다. 전투를 위해 공격 태세를 갖추었고 바퀴에 불꽃이 튕 정도로 번개 같은 속도로 병거를 몰고 올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정예병을 소집시켜 보지만 그들은 급히 성으로 달려가 성



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할 만큼 민첩한 군대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방어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으키신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응징해 주시기 위해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단에 있던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 두려움에 떨던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어찌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사환은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대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말과 불병거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질 아시리아(6-10)

6-10절은 황폐해지는 아시리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8절입니다.

(6-8)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강들의 수문’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북동편에 위치한 댐의 수문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들이 열렸다’는 의미는 전쟁으로 인해 그 수문들이 터져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왕궁의 소멸됨은 곧 왕궁이 휩쓸려 떠나려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쪽에 위치한 난공 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있어 ‘강들의 수문’은 그들의 힘과 지혜를 더욱 확신케 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믿던 그 수문들이 터져 열림으로 결국 왕궁이 소멸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평소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님 심판의 촉매가 됩니다. 권력을 의지하였다면 그 권력욕 때문에 자리에서 끌려 내려

오게 되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며, 명예를 의지하였다면 그 명예욕 때문에 결국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마치 ‘물이 모인 못’처럼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재물을 발판 삼아 주변 열방들을 침략하고 정복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잔인한 약탈 또한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진 그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던 재물들을 남겨 두고 도망치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명예를, 돈을 의지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9-10)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니스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낮이 빛을 잃도다

그동안 갖은 약탈로 온갖 보물을 그득히 쌓아두었던 아시리아는 이제는 역으로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털리고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그들은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은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받고 선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 유입니다.

### 아시리아의 몰락과 보수하시는 하나님(11-13)

(11-12)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본문의 ‘사자’는 아시리아를 상징하며, ‘굴’은 수도 니느웨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자는 아시리아의 상징물로 아시리아 군대의 깃발에는 사자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사자’와 ‘암사자’, ‘새끼 사자’는 아시리아의 왕과 왕후들, 그리고 왕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문의 표현처럼 아시리아의 국력이 막강할 때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암사자들이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우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던 것처럼 아시리아는 주변국들을 차례로 정복해 수많은 전리품으로 자신의 왕궁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받은 힘을 탐욕이라는 자신의 굴을 채우는 데 오용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선언이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굶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망각한 채 주변국들과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잔인하게 약탈한 아시리아는 결국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멸절될 것입니다. 사실 아시리아는 이미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멸망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그들은 잃을 뻔했던 생명을 다시 얻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진리의 비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욕심의 비질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때로 아시리아와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향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해 주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는 아시리아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세워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또한 똑같이 악으로 갚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내면을 자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며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원통함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비질을 중단없이 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악인의 압제가 때로는 우리를 빗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용하는 겸비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고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안에 악으로 갇고자 하는 욕구가 용솟음칠지라도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며 진리의 비질을 중단없이 해 나가는 저희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남유다를 약탈했던 아시리아는 동일하게 약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고 결국 이 과정은 남유다의 회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2절). 현재 나에게 수모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내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2. 아시리아는 그들이 의지하던 강들의 수문이 열림으로 결국 왕궁이 소멸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현재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진리의 비질이 아닌 욕심의 비질을 한 아시리아의 최후는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10절)? 나는 현재 어떤 비질을 하고 있습니까?
4.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생명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진리의 비질을 해 나가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13절)?



# 3

## 화 있을진저

나훔 3:1-19

1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 획획 하는 채찍 소리, 웅웅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음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4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5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6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7 그 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느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8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9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10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11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파난처를 찾으리라 12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13 네 가운데 장정들  
 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  
 에 타도다 14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15 거  
 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 같이 스스로 많이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이  
 할지어다 16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이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  
 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17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  
 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  
 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18 앗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  
 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19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외  
 쳤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  
 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니느웨의 멸망 계획을 거두  
 어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곧 멸망을 당해야 할 사람들조  
 차 회개한다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  
 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 죄악에 빠지게 되면 영원히 기다리시

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나훔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의 외침 이후 1세기가 지나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니느웨 멸망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훔 3장은 2장에 이어서 니느웨 멸망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특히 멸망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멸망의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피의 성, 미모의 음녀(1-7)

(1)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며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가 멸망을 받아야 할 원인으로써 그들의 잔인함을 알립니다. ‘피의 성’은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며 약탈을 일삼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는 이를 ‘파괴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2장 12절에는 파괴와 약탈을 일삼는 자를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포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강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니느웨는 소유욕이 끝이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빼앗았습니다. 소유물을 강탈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

람이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2-3) 획획 하는 채찍 소리, 웅웅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음 당한 자의 떼,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1절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면 2, 3절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은 청각적 묘사입니다.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말발굽  
소리. 3절은 시각적 묘사입니다. 말을 탄 군인들의 충돌, 번쩍이  
는 칼과 번개 같은 창, 그리고 칼과 창에 의한 살육과 그로 인  
한 수많은 시체 무더기와 이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강  
대국 앗수르(아시리아)의 수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외부 공격  
에 의해 비참하게 당할 것이라고 니느웨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경고에 하나님을 두  
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4절은 2, 3절의 묘사처럼 니느웨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모의 음녀’는 니느웨를 가리킵니다. ‘미모의 음녀’가 마술에 능숙하다는 것은 곧 사람을 잘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 언급한 멸망의 원인인 거짓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니느웨는 ‘미모의 음녀’처럼 주변 나라를 감언이설로 기만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기만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은 오늘날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력을 빙자하여 이익을 챙기고 이익이 사라질 것 같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기만행위를 니느웨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녀’ 니느웨에게 말씀하십니다.

(5-7)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यो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 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전한 나라 사람들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벌거벗겨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미모의 음녀’로 의인화하셨는데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듯이 니느웨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마를 걷어 올

려 얼굴까지 올린 상태에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뒤집어써서  
 능욕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광경  
 은 보기에 너무 끔찍하고 비참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도망하  
 듯 피할 것이라고 하시며 니느웨를 애곡해 줄 사람도 없을 것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노아몬보다 낫겠느냐(8-19)

(8-11)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뱉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8-11절은 니느웨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  
 다. ‘노아몬’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몬의 도시’입니다. 태양  
 신 아몬의 신전이 있었기에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문헌을 보면 이 도시는 성의 둘레가 약  
 38km나 될 정도로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약 140년 동안 근  
 동의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강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  
 는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에 외세의 침입에 의해 함락되기 매우

어려운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도 주전 663년경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이로부터 약 50년 후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같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 철벽방어선을 가졌던 거대한 성읍 ‘노아몬’도 멸망을 당하여 비참하게 하셨듯이 니느웨 너희들도 무기력하게 멸망당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현대사에 강대국이 영원히 강한 나라로 존속했습니까? 오늘날 강대국이 영원히 강한 나라로 존속하겠습니까? 힘을 과시하며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아몬처럼 앗수르의 니느웨처럼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가득 채워야 할 것, 겸손과 진실과 선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3)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흔들어 열매가 떨어지게 하듯이 니느웨를 흔들어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장정들은 여인처럼 약해질 것이고 성문들이 열려 방어막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17)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태세를 튼튼하게 구축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에서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써보아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17 절은 느치와 메뚜기에 비유하여 니느웨가 피해를 입을 것과 방어막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느치떼가 곡식을 갹아먹듯이 니느웨를 갹아먹을 것이고 니느웨 힘의 상징인 상인과 방백과 장수들이 메뚜기 떼가 날아가 버리듯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한순간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 철옹성과 같이 의지하는 것, 애착하고 있는 물질들은 메뚜기가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물과 불의하게 조직한 사람들은 쉽게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가야 하며 의롭게 사람을 세워야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개인과 가정과 기타 단체



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18-19) 앓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앓수르 왕에게 나라가 무기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귀족은 나라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라기보다 죽음의 잠을 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기력하게 되었고 백성은 흩어졌으니 나라가 다시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처와 부상은 고칠 수 없고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니느웨의 무기력한 상태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조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니느웨로부터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행패는 1절에서 언급한 거짓과 포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거짓으로 탈취하고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듯하였으나 다시 과거 죄악의 길로 회귀했던 니느웨를 향하여 영원히 참지 않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훔서의 특징은 다른 심판의 예언서와는 달리

회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는 니느웨의 죄악이 극심하기에 이들의 회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니느웨 사람의 구원을 반대하고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를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어 막으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통회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음 세대로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에서 받았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100년을 지나 20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힘씁시다. 오늘 하루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비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신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처럼 회개한 사람이 다시 죄악에 빠져 거짓과 포악을 일삼을 때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잊지 않으며, 오늘 하루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빛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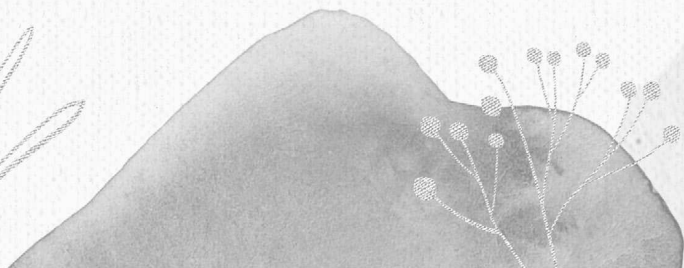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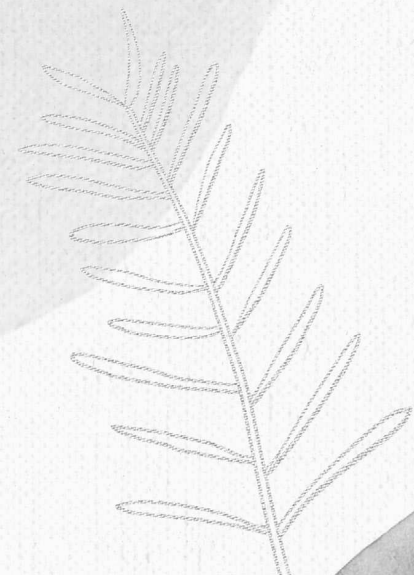
## 묵상을 돕는 질문

1.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약 1세기가 지나자 나훔 선지자를 통해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니느웨가 왜 ‘피의 성’이라고 불렸습니까?
3. 니느웨의 적나라한 멸망의 모습을 통해 느낀 바가 무엇입니까?
4. 막강한 애굽의 노아몬과 앗수르의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이 세상에서 선을 떠나 행악하는 자에게 영원한 부귀영화가 없음을 볼 때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5.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잘 지어져 가고 느치와 메뚜기의 사라짐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하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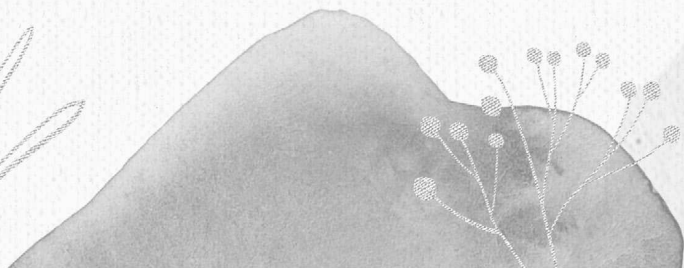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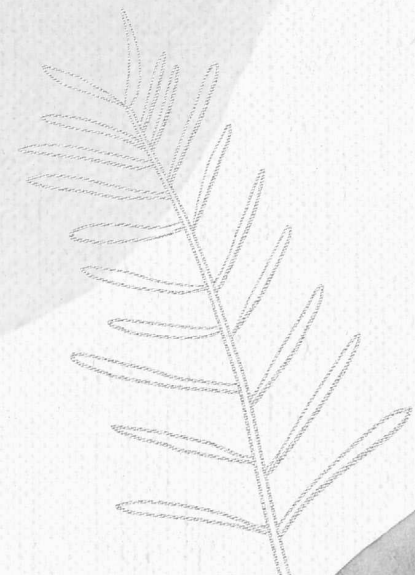


## 차례

하박국 1:1-17

하박국 2:1~20

하박국 3:1-19



1

##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하박국 1:1-17

1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겹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 이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9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홍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죈하리라 12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

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17 그가 그물을 떨고 있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1-4)

‘하박국’은 ‘포옹하는 자’ 또는 ‘포옹 받는 자’라는 의미인데, 선지자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내용과 잘 연결됩니다.

하박국은 B.C. 612-60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B.C. 612년은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바벨론)을 일으켜 쳐들어오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바벨론이 니느웨를 점령한 이후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유다를 쳐들어와 유다의 여러 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B.C.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제1차 침략으



로 보입니다. 그래서 B.C. 612-605년 사이에 이 책이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와 같이 큰 도시에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레셋에서 미가 선지자를, 엘고스에서 나훔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 선지자는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선지자를 돌이키시기 위해 바다에 풍랑이 휘몰아치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선지자를 삼켰다가 3일 후에 뱉어내게도 하시고, 다시 소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박국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질문에 자세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하박국은 총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두 번 반복되어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증거합니다.

1-4절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문자적으로 가까운 의미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외국어 성경은 ‘신탁(神託)’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짐(burden)’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가 전해야 하는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하는 말씀이며, 그 말씀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고 아주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2a)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의미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참 솔직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와 같은 기도는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

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무엇을 더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면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b)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는 ‘폭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의 유다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의 16번째 임금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온 나라를 말씀으로 세우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과 애굽 사이에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요시아는 아시리아 제국의 편에 서서 애굽 왕 바로<sup>2</sup>의 진군을 막다가 므깃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이후 유다는 애굽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 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유다 백성은 각자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착취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온 나라가 힘의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서로 상대방에게 갑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3-4)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검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힘의 논리가 판을 치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해이하다’는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 마음이 느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의미는 ‘마비되다’입니다.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 것은 뇌가 내리는 명령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내리는 명령에 손발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말씀)이라는 머리가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 그들은 이방인과도 같았습니다.

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어도 왜곡된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정의’는 대부분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행하심)를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

시 유대 사회의 재판은 공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비롯하여 ‘뇌물무죄’ ‘무뇌물유죄’, ‘악인무죄 의인유죄’, ‘권력무죄 무권력유죄’ 등 하나님의 공평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는 사람이 적은 것은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5-11)

5-11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하나님께서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향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심-에 대한 하나

님의 답변입니다.

(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다를 향해서 “주변 나라를 보고 놀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을 ‘너희의 생전에’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100년 또는 200년 후에 행하실 것이라고 하면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행하시면, 그 일을 고스란히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충격이 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6-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7)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갈대아’는 ‘바벨론’의 별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갈대아 지방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사납고 성급하

며,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참 잔인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가치관을 주입하여 유다와 같은 피지배국을 바벨론화 하는데 매개체로 삼았습니다. 또한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고, 수많은 유다 백성도 끌고 가서 노예살이를 시켰습니다.

(8)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져 하는 독수리의 낚과 같으니라

바벨론 군대의 주력은 ‘기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표범’에 비유합니다. 표범은 빠르기도 하지만, 사냥 능력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납니다. 또한 그들은 ‘이리(늑대)’와 같다고 합니다. 늑대와 같은 개과의 동물들은 지구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추격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또한 독수리는 창공 2,000m 지점에서 들판을 지나가는 쥐가 보일 정도로 시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발견하고 높은 창공에서 바닥까지 낙하하는 비행속도는 시속 250km가 넘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9)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갈대아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강포(폭력)’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는 ‘동풍이 불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막 같은 곳에 심한 바람이 불면 이쪽에 있던 모래가 반대편으로 몰려가서 언덕을 만들곤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람(‘포로’를 뜻함)을 잡아서 모래 언덕처럼 쌓아 놓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11)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홍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안에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안전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800m나 되는 곳에 세워진 고원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은 ‘홍벽\_성벽과 같은 성벽’을 쌓아서 그것을 성벽에 붙여서 뛰어넘음으로 점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만만해하며 교만하게 행할 것을 예언합니다.

####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12-17)

12-17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



자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칠 것이라는 응답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악을 많이 행했다고 해도, 더 악한 사람이 그들보다는 의로운 유다를 삼키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의 의미입니다. 또 다시 길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4-17)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와 벌레처럼 취급하여서 낚시(갈고리)로 잡고, 그물과 투망으로 잡아서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풍어 제사)’을 해도 됩니까?라고 절규하며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내일 본문 2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잃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진리와 생명의 비질을 해서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선지자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처절한 질문 드리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롭게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참 많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어떤 문제나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질문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질문의 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께 가장 간절하게 질문드린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2.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 중 정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3.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중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셨습니까?
4.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바른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2

##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1-20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 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6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7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8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었도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9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0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욱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  
 었도다 11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12 피로 성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  
 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  
 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15 이웃에게 술을 마  
 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  
 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6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와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욱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17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  
 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  
 오리라 18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  
 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 오직 여  
 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  
 님은 인간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  
 박국 선지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불쌍  
 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선지자  
 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어제 살펴본 1장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징계의 도구로 삼아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겠다고 합니다. 성루는 적의 침투를 파악하기 위해 파수꾼이 보초를 서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적의 공격에 대항이라도 하듯,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보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동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3)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새기라고 합니다. 이는 너만 알지 말고 유다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기록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이 불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인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는 것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악인이 더 잘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생각한 의인과 하나님이 생각한 의인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박국의 때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5)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7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셨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가 나고 빠지는 것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가 나고 빠지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포합니다. 다음과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여 자기 성을 건축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술 취하게 만들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유다 백성보다 악한 갈대아 사람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 잘못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멸망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에 멸망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 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아스포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살아계신다면 왜 침묵하시나? 이처럼 악한 인간을 왜 그대로 두시는가?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구역성경공부 내용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울은 왕입니다.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집 왕궁에서 살고 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매일 빌어먹어야 살 수 있는 처지입니다. 빈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으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오늘도 진리의 비질을 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길을 오늘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매맺는 것을 목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믿음 안에서 기다리며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진리의 비질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2.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납득이 되십니까?
3.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4. 만약 자신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자신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

히박국 3:1-19

1 시기오돗에 맞춘 선지자 히박국의 기도라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 하나님께서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8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9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12 주께서 노를 밟아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



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닷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14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홀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 선지자의 기도(1-2)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펼쳐진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들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더 악한 나라가 덜 악한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답으로 불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며, 또한 그 갈대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함축적으로 2:20로 정리됩니다.

(2:20)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시며 온 땅은 그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실의 부조리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히 하시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이 3장에 나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시기오돗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시기오돗’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편 7편에 사용된 ‘식가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탄식 시’이며 일반적인 리듬을 넘어 격한 감정을 빠른 리듬으로 표현한 형태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 내용을 살펴보

면 임박할 환난에 대한 탄식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경배하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문’이란 그동안 성경과 구전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구하는 ‘주의 일’이란 남유다의 멸망과 그 심판의 도구였던 갈대아 사람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흥과 연관될 수 있는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남유다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한 내용과 이어서 보았을 때 심판 속에도 ‘남은 자’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고 회복될 것을 간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부흥을 논할 때 단순한 수적인 증가나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번성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구원의 용사되신 하나님을 찬양(3-15)

3-15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합니다.

(3-7)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3절의 데만은 에돔 땅이고 바란 산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바란 광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직접 나타나셨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광명과 광선은 출애굽기 19장 우레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과 연기와 불 가운데 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역병과 불덩이는 출애굽 시에 애굽의 백성에게 내리셨던 역병과 우박과 불덩이 재앙을 기억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8-10절은 홍해와 요단강과 나일강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8-10)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말을 타고 병거를 모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  
으며 강과 바다를 향하여 활을 쏘는 모습을 통해 홍해와 요단  
강을 가르시고 또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던 하나님의 위대하  
신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 용사는 멈추지 않고 화살을 쏘았고 창을 던졌는데 해와  
달은 마치 창과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 멈춰버린 사냥  
감같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스라  
엘이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초자연적 방법으로 해가 지지 않  
게 도와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12-15절의 내  
용에도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용사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크  
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하박  
국 선지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  
양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 나라 간에도 개인 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며 또한 그것을 묵인하는 듯 보이는 하나님을 무능력하신 분, 우리를 잊으신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금 격정적 리듬의 노래를 지어 부르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우기 어려운 것들은 노래로 지어 부르면 잘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를 하박국 2:2에 판에 명백하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곧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3장의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회상은 신앙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좋았던 집을 회상했을 때 그의 발걸음이 아버지 집으로 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산과 바다와 강과 무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눈앞의 혼란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조용히 과거에 자신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그 하나님을 되찾을 때 우리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

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16-19)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을 마치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립니다.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자신들을 공격해올 갈대아 사람들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찼습니다. 그 고통은 창자가 흔들리며 뼈가 썩는 것 같은 육신의 아픔이었습니다. 심각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녹는 듯했습니다.

(17-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날에 환난으로 인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을 것이며 양과 소는 기근과 약탈로 인해 보기도 힘

든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심판과 찾아온 기근과  
환난 속에서 기뻐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은 바로  
‘여호와 곧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같이 민족적 어  
려움,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상실, 외부의 공격을 당할 때가 있  
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만약 하박국 선지자가 단순한 민족주의자였거나 개인의  
안락을 목표로 삼았다면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  
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심판의 때를 지나 회복  
과 부흥의 때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  
인은 눈앞에 찾아온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알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성전에 좌정하사 다스리  
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  
를 이루어가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소망  
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의인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  
니다. 우리는 작은 일 작은 고통에도 두려움과 좌절로 인해 자  
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  
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마지막 고백에 그 비밀을 이야  
기합니다.



(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서 ‘높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는 ‘높고 험준하고 가파른 산’을 뜻합니다. 이 가파른 산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개인과 공동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지뢰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장 숨이 막히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그 높고 가파른 하루의 산등성이를 날랜 암사슴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올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지자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하박국만의 노래가 아니라 전쟁 중, 포로 중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회상하게 하는 선지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부를 삶의 노래는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한 사람의 믿음의 노래가 공동체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

듯이 오늘 내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기억하고 삶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때, 그 삶의 노래로 인해 사람들은 잊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그 노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의 높고 거친 산을 걸어가는 동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듯 고난과 아픔의 바닥에 쓰러진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험한 산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이 하루를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가까이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악인이 득세하고 공의가 굽은 듯 보이는 모습이 많지만,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환경이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의 거친 산등성이를 암사슴처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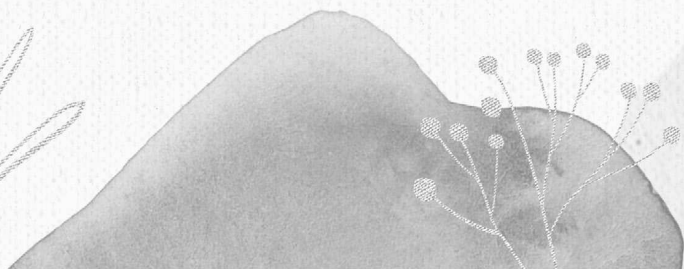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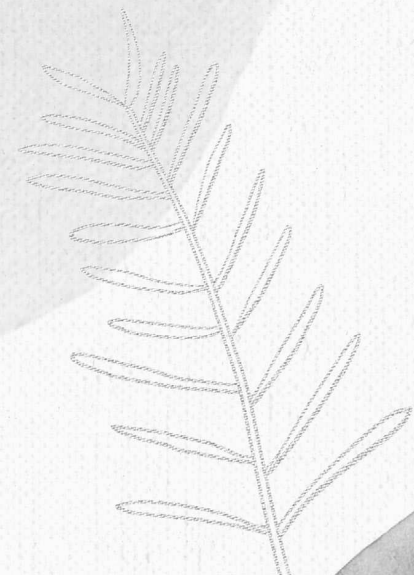
1.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부흥’은 무엇이었으며 이 시대가 구하는 ‘부흥’의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 묵상해 봅시다.
2.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보며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 봅시다.
3.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과 극심한 기아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4. 오늘 내 삶에 높은 산 같이 쌓여있는 어려움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스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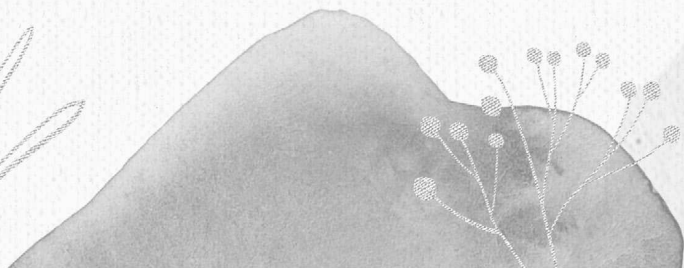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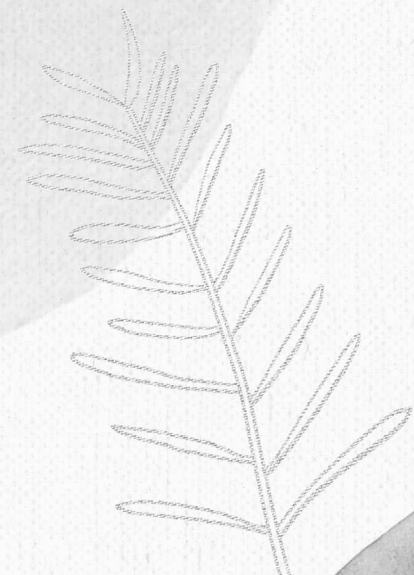


## 차례

스바냐 1:1-18

스바냐 2:1-15

스바냐 3:1-20



1

##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 1:1-18

1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미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립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6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7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8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 이 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1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올라 가나안 백성이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12 그 때에 내가 예루

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  
 로 두루 찾아 별하리니 13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4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  
 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  
 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건  
 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7 내가 사람들에게 고  
 난을 내려 맹인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  
 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 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 같  
 이 될지라 18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  
 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 우상숭배의 죄(1-6)

‘스바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가 영적으로 암울했던 므낫세 왕의 박해시대에 태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호하심을 받은 것과 잘 부합됩니다.

스바냐는 요엘과 같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그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심  
 판의 날이기는 하지만 그날에 이스라엘(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인들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1-6절은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1)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스바냐도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시작합니다. 즉 이 말씀은 스바냐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말고 심각하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족보를 4대까지 언급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자신의 부친 정도 소개하거나 아예 소개하지 않는데, 그는 고조((高祖),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소개합니다. 그의 고조는 ‘히스기야’였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요시아 왕과는 친척 관계에 있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고, 그의 신앙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2-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시아 왕보다 앞선 두 임금,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극도로 패역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도 우상숭배와 사회 불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시행되었던 때는 노아 시대입니다. 그때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때도 그때와 방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짐승까지 함께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망의 길로 갈 경우, 나머지 창조세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반려견을 사랑하여 좋은 집을 지어주고 좋은 사료를 매일 먹였다 할지라도, 만약 그 개가 없어진다면 그 개집과 사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우상숭배로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4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 숭배’입니다.

(4)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는 본래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바알 숭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 겉으로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에서까지 지운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림’은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은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이나 작품의 짝퉁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욕망을 극대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마림’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월성신 숭배’입니다.

(5a)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것은 가나안과 바벨론을 비롯한 다신교를 숭배하는 나라에서는 보편적이었습니다.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영원한 지표로 삼습니다.

세 번째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5b)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유다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봐 다른 보험을 들어 놓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것을 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재산증식을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듯이, ‘분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분산 신앙’은 없습니다. 오직 ‘올인(All-in)’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배교’입니다.

(6)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그럴 거면 호적 파서 나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 자녀에게 듣기 원하는 대답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아들/딸이라는 생각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질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떠나다 보니 나중에는 이방인, 불신앙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 여호와와 날의 심판(7-13)

7-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7)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지도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쫓겨 죽은 듯이 조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이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물 잡을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제물은 유다 백성을, 제물 잡는 사람은 이방인들(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 여호와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심판의 1순위는 지도자들입니다. 방백들(대신들)과 왕자와 같은 왕족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으려면 외국으로 나가 직접 사서 입든지, 수입해 온 것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당시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9)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은 이방 신전을 넘나드는 우상 숭배자들과 남의 집을 넘나들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에게는 ‘탐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10-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 이 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올라 가니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일반 백성,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어문’이 있는 곳이었습시다. 그리고 ‘제2구역’과 ‘작은 산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언

급되는 곳이 모두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막데스’는 제2구역의 중심지로 보입니다.

유럽에 있는 도시를 보면 대부분 그 도시에서 높은 곳, 언덕에 교회(예배당)가 있고, 그 옆에 왕궁(시청)이 있습니다. 그 곳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도 찾아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기 집을 짓고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 농사를 지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 여호와와 날의 가까움(14-18)

14-18절은 여호와와 날이 임박했음을 선언합니다. ‘여호와와 날’이 어떤 날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4-16) 여호와와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와 날의 소리보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와 큰 날’은 어느 지역에만 임하게 되는 날이 아니

라 전국적으로 임하게 되어, 유다에게 치명적인 날이 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초대형 지진이나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 마을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깝고도 빠르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날의 특성이 ‘분노’,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두움’,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와 날이 오면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18)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 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 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와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백성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중도에 실명하신 분의 놀림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의 백성을 그런 상태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꼭 실명하지 않아도 앞으로의 삶에 조그만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좌절의 어두움만 가득할 때,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재산증식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부(國富)를 강하게 하는 첩경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례행사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곡식이나 은이나 금과 같은 귀금속을 주면 그냥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목숨을 달라고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요시아 왕 때는 유다 백성의 신앙을 새롭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그의 시대는 유다 백성의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 하는 삶,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됨, 그리고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 전체가 ‘곤고한 사람들’, ‘곤고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통치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종교개혁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와 날\_하나님의 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상급의 날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와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와 날’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기쁨과 감사의 날, 소망과 상급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날마다 소망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매일매일을 자신을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기념일로 가꾸어 가며,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들까지 진멸하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또 깊이 느끼신 일은 무엇입니까?
2.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또는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3. 스바냐는 ‘여호와와 날’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여호와와 날’이라고 명명할 만한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또 우리의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여호와와 날을 상급의 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2

##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스바냐 2:1-15

1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 여호와와 규례를 지  
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  
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4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  
론은 뿔히리라 5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6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 떼의 우리가 거기  
에 있을 것이며 7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  
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  
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8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  
이라 찢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  
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  
이라 10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백성을

훼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11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2 구스 사람들이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앗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 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4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떼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15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끄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엮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 하나님을 찾으라(1-3)

본문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2, 새번역)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거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 ‘수치를 모르는 백성’,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르며 책망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외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음을 일갈하는 것입니다.

(렘 6:15, 새번역)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워하기라도 한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거짓된 행동이 멀지 않아 드러남에도, 가만 보면 모두 자기를 위하고 자기 포장을 일삼으면서 ‘자기 옳음’과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그 역겨움에도 어쩔 그리도 당당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표정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안색도 안 변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게 분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이 땅 교회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자들이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망가져도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토록 부끄러움도 없는지, 창피한 줄도 모르는 교회들을 향해 그저 안쓰러움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한마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자!” “주님의 분노가 눈앞에 보이니 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백성아! 너희들 정말 하나님

을 믿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 믿고 있는 거니? 정말이야?  
이제 심판이 멀지 않았어! 어찌려고 그러니...” 이 회개의 촉구  
는 ‘수치를 모르는 자’(1절)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3절)들도 예외가 아  
닙니다.

(3)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 처음에는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며 시작합니다. 겸손함으  
로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끝까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  
람만이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입니다. 결코 당연함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까,  
내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니까, 당연하게 누리는 인과응보가 아  
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혹시’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합 3:2).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뿐이요, 그 긍휼에 감  
격하고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가상한 노력이나  
열심, 헌신으로 주님의 긍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 메시지(4-15)

이렇게 유다 백성을 향한 회개 촉구는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4-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고(삼상 5장), 여호람 왕 때 유다 왕궁과 성전의 제물을 약탈해 갔습니다(대하 21장). 그 악행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4)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뿔히리라

4절에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 모두 언급됩니다.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며’, ‘뿔히리라’는 표현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8-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자신들의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막았습니다. 또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암몬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함께 유다를 침략하여 잔인한 살육을 행했던 민족입니다.



(8)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한 말들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저들이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살육과 약탈을 행한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래전 출애굽 때의 일부터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일까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시 139:1-3, 새번역)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살살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13-15절은 앗수르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앗수르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15)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었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랴

앗수르 민족은 니느웨 성의 부귀영화만 자랑하며 안일함에 빠져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평안하다”만 노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며,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소리치는 오만방자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한 소리가 있음을 아십니까?

(계 3:17, 새번역)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나’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나’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절절히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의 고백이 우선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를 찾습니다. 그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과 진리가 절실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진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은혜 아니면 난 사망입니다!’의 진정성 있는 절박한 고백이 신앙입니다. 오늘날 이 땅 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

까지 망가진 이유는 이 고백을 잃었거나 아니면 이 고백이 말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내십시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며 면목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신뢰하며, 오직 주 예수만 늘 의지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본문 1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해 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2. 모압과 암몬을 향해 심판 메시지를 보면(8-11절), 하나님은 그동안 그들의 죄악 된 행실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3. 앗수르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15절)며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3

## 너의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1-20

1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2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3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4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5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6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7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8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별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9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0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흡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

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11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2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  
 라 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  
 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4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 여호와가 네 형벌  
 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  
 지 말라 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8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19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  
 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남유다 16대 왕 요시아 통치 18년에 여호와와의 성전을 수리하다  
 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 율법책을 읽다가 자

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이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깨달음을 얻은 후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들려주고 백성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명령하며 각종 우상 등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습니다(대하 34장). 이것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종교개혁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을 때 시작된 것처럼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사람을 요시아 왕의 친척인 스바냐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와 날’을 예언하였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 남유다의 심판을, 2장에서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회개할 것과 구원받을 자들의 구원을, 3장에서 앞 두 장과 같이 예루살렘의 죄와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1-8)

(1-2)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이 성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명령과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가까이하지도 않았기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3-4)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3절은 정치 지도자들을 부르짖는 사자와 저녁 늑대로 비유합니다. 지도자들의 잔인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경솔함과 간사함과 불경건함과 율법위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5)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매일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심에도 불의한 자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정의의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으로 정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6-7)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이를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더럽혔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한 자가 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데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작정하셨더라도 회복을 위하여 살 터전을 남겨두실 정도로 택한 백성이 멸절되기를 원

하지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부지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벌할 날’이 ‘여호와의 날’이며 ‘분노와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은 ‘그날에’ 모든 민족과 나라를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악을 행했던 자들은 질투의 불로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여호와의 날’에 질투의 불로 인한 심판만이 있지 않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내용이 9-13절입니다.

####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9-13)

(9-13)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흡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께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지만 구원을 베푸실 때 구원받을 자  
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  
을 부르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9절). 예물을 바치  
도록 하십니다(10절).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11절).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십니다(12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악을 행  
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주목할 점은  
11절에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범죄 행위로 인해 정죄함과 심판  
을 받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범죄 행위  
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  
서 노래합니다.

####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14-20)

(14)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구원받을 백성, 거룩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를 알려줍니다.

(15)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벌에 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1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6-17)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

겠습니까?

(18-20)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과 대적들을 벌하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십니다. 각 절마다 ‘모으다’라는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시고(18절),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19절), 너희를 모으신다(20절)고 합니다. 근심하는 자들이란 예배드릴 때 예배의 장소로 가지 못하여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갈망하지만 예배드릴 처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괴롭힘을 당하였지만 칭찬과 명성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20절은 명성과 칭찬을 재차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는 우

리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시아 왕 때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 회개를 통한 정결의 과정을 거쳐서 신앙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신앙개혁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에게 경외함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광선을 보고도 정의를 외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 회복에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범죄한 모든 행위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으로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을 이겨나가는 오늘 하루 보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정의의 빛을 비추시는데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누리게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모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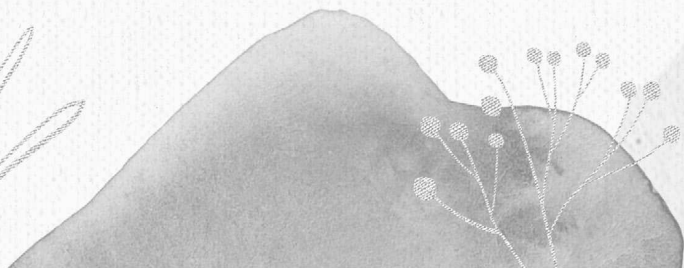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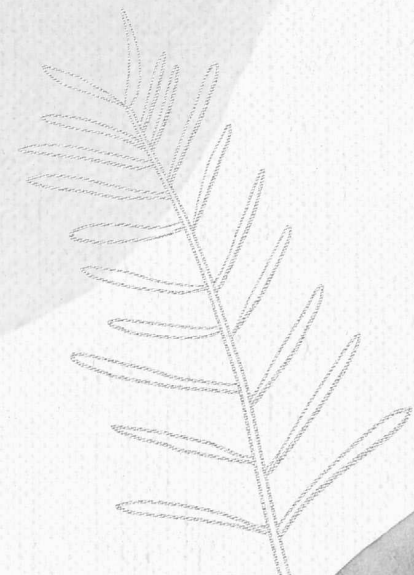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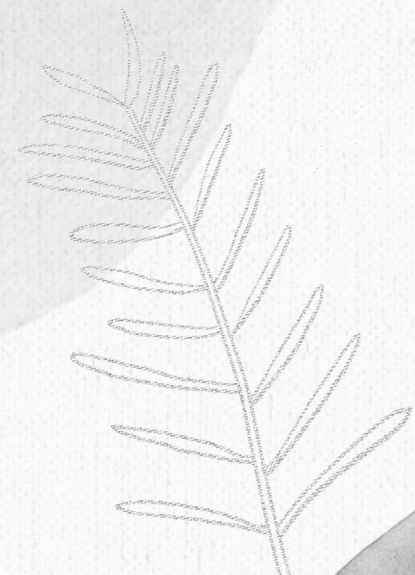
# 학개



차례

학개 1:1-15

학개 2:1-23



1

#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 1:1-15

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관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와 말하였느니라 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나 내 집은 황폐하였도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0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13 그 때에 여호와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 그 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다라

#### 성전 건축에 태만한 태도를 질책(1-6)

학개는 그 뜻이 ‘축제’, ‘절기’이고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고달프고 서글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 137:1-4)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유다 백성은 조국에서 끌려와 이방 땅에서 종살이했는데, 그들은 노동현장인 여러 강변에서 시온(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종살이하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에게 “야, 너의 나라 노래 한번 해 봐!”라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는 수금을 탈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종의 신분으로 살아보니깐, 유다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성전에서 제사(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고통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동의 지배자였던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강해 보였는데, 페르시아 제국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등극하자마자, 유다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환 조서를 내렸습니다. B.C. 53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스룹바벨의 주도로 약 50년 만에 약 50,000명의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시편 126:1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감격 속에 훼파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B.C. 536년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하고, 투서를 보내기도 하며,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 백성도 건축하다가 만 성전이 방치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러 B.C. 52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1-6절은 성전건축하는 일을 태만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질책입니다.

(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이 B.C. 520년입니다. B.C. 520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유대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라는 것입니다.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유다 백성에게 책망하시기를, 그들은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이른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이나 무관심 속에 버려두면서도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속이 상하셨는지 유다 백성을 평소에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정말 여력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화려한 집’으로 볼 수도 있고, ‘완성된 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벽돌이나

돌로 집 건물의 외부를 짓고, 안은 하나의 공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의 내부를 판벽, 널빤지로 장식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거주지에는 지극정성을 쏟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반대도 있었고, 인부로 투입될 사람의 숫자도 부족했고, 재료와 경제력도 부족했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도 있었다” 등의 핑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더 부유한 삶,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씨앗을 많이 뿌렸음에도 거두는 것은 적었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마셔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옷을 껴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



서 봉급을 모았는데도,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성전 건축의 격려(7-11)

7-11절은 성전 건축을 격려합니다.

(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답변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성전 건축을 한 이후의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그것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11)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6절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합니다. 또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또 비를 많이 내리셔도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은 유다 백성에게 ‘한재(가뭄)’,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8)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절에서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자신들의 삶을 먼저 챙겨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살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7절의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두어야 할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당시 최고급 목재인 레바논 백

향목과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 백성의 분발(12-15)

12-15절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2-13)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백성은 물론 대제사장까지 듣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신비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14a)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대제사장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데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4b-15)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 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다라

학개 선지자가 성전 지을 것을 명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을 준비를 끝낸 것이 6월 24일이라고 하십니다. 즉 불과 23일 만에 건축 준비를 끝냈습니다. 성전 완공은 4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4년 공사할 내용을 23일 만에 준비했다는 것은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전력을 기울였음을 뜻합니다.

지금도 학개 선지자 때처럼 건물 성전을 짓는 시대는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삶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의 성전은 건축자재보다 ‘거룩\_구별’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별됨이 없다면 그곳은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며,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개혁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선 순위를 바꿈으로 16년 동안이나 미루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믿음을 주시고, 바르지 못한 순위를 다시 바르게 바꾸어 놓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함을 다시 들었을 때 그들은 23일 만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내 삶과 신앙의 개혁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다 백성은 많이 뿌려도 적게 수확했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많이 마셔도 갈증이 있었고, 옷을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열심히 벌어 모아도 저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2. 유다 백성은 성전 건축과 인생살이의 우선순위를 바꾸므로 좋은 결과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바꾸어야 할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3. 유다 백성은 학개 선지자로부터 바른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 자신의 삶과 신앙을 개혁하며, 삶의 성전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2

## 성전 재건

학개 2:1-23

1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 그러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0 다리오 왕 제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

기를 12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  
 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  
 는지라 13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말  
 씬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5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6 그 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길으려 이른즉 이십 고르뿐  
 이었었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꺾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  
 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8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  
 홉새 달 이십사일 곧 여호와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0 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  
 니라 이르시되 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  
 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  
 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23 만군의 여호와  
 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  
 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 성전 재건 독려(1-9)

1장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황폐하여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고, 이에 감동된 총독,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은 드디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합니다. 이때가 7월 21일이라 되어 있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니 그로부터 27일이 지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날은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장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로 이때는 편안한 집을 떠나 초막과 같은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총독과 대제사장뿐 아니라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백성 중에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볼품이 없을 정도로 너무 초라해 실망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나 봅니다.

(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에스라 3:12-13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합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는데, 많은 학자는 이때 이들의 울음이 감격으로 인한 울음이라기보다 그 성전 기초가 너무 불품이 없어서 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외형이 초라함에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외형이 초라하다고 하여 주님이 계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본질을 간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인 우리가 ‘율법이 가진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인 동기를 지닌 채 형식을 지키는가’에 있습니다. 본질에서 비롯되지 않은 형식은 오히려 타인을 찌르는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은 그 형식이 갖는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본질 안에서 행해질 때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보이는 겉모습이 화려해 보이지 않아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율법의 참 본질이 지켜지

지 못하고 있다면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4-9, 새번역)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 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 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 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주님의 격려는 첫째,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이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포로 생활을 하던 때나 또 포로에서 풀려난 후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망하게 함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격려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있다

는 것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전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 솔로몬 때의 화려한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무너진 우리 내면의 성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재건되기를 주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응하여 우리를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언약에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끝까지 믿고,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재건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축복의 약속(10-19)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두 달이 지난 9월 24일에 다시 말씀이 임했습니다. 11-13절에서 하나님은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여지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여진 사람이 어느 것을 만지면 그것 역시 부정해지는가’였습니다.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죄는 쉽게 퍼져가지만, 거룩은 거룩한 신앙 행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였다

하여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만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 어떤 동기,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는가가 거룩함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15-17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성전 건축 이전을 돌이켜 보라고 합니다. 이들이 얻게 된 빈약한 추수와 재해는 불순종, 즉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고를 보고 들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를 정직히 돌아봄은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현재 나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때 미래의 바른 방향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1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오늘부터 즉 성전 기초를 놓은 날부터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을 결정하여 실행한 날부터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 메시아의 통치(20-23)

20절에 보면,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뒤흔드실 것이며, 둘째,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옥새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겠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위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것이고, 스룹바벨을 하

님의 옥새로 삼겠다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신앙개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순응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 오늘의 기도

주님! 겉모습의 화려함에 이끌려 본질을 놓치며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아파하는 양심과 눈물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참된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무너진 우리 내면의 성전을 잘 재건해 가는 하루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3절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2.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니까?
3.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성전 건축 이전을 돌이켜 보라고 합니다. 나의 과거를 잠시 정직하게 돌아보고 현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 내 삶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서 나는 오늘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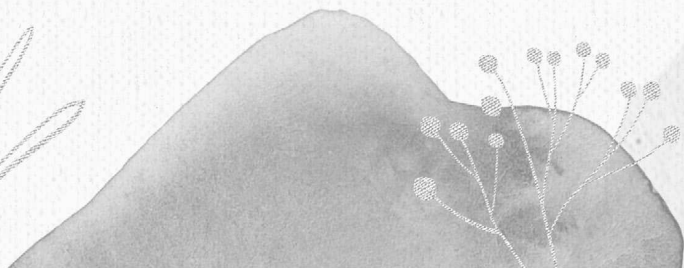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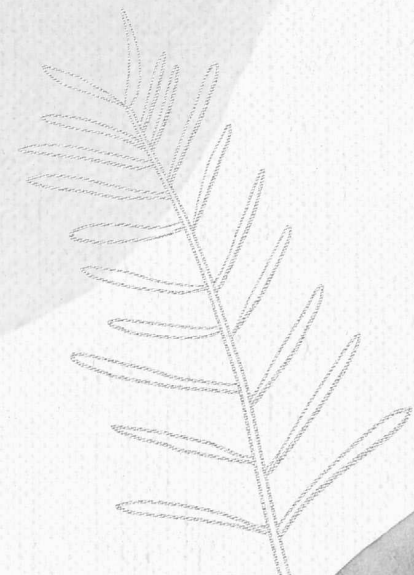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스가랴



## 차례

스가랴 1:1-21

스가랴 2:1-13

스가랴 3:1-10

스가랴 4:1-14

스가랴 5:1-11

스가랴 6:1-15

스가랴 7:1-14

스가랴 8:1-23

스가랴 9: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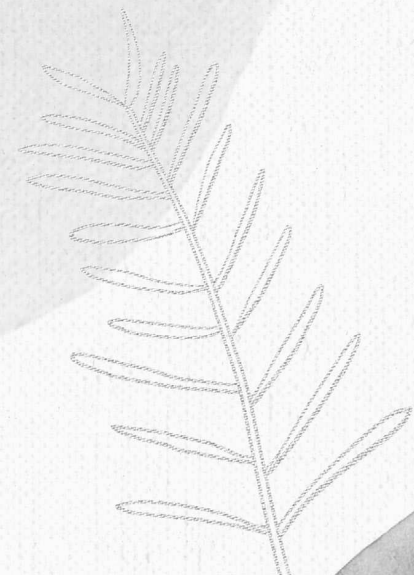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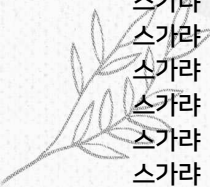
스가랴 10:1-12

스가랴 11:1-17

스가랴 12:1-14

스가랴 13:1-9

스가랴 14:1-21



##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스가랴 1:1-21

1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와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4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5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7 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باط월 이십사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니라 8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9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10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11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와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12 여호와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3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 단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18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19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뿔이니라 20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흠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흠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 스가라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1-6)

‘스가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으로, 예언자 학개와 동시대(학 1:1) 인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총 열네 장으로 구성된 스가라는 호세아와 더불어 소선지서 중 분량이 가장 많으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가라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1)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와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날 일시가 명확히 기록된 자료는 그렇지 못한 자료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됩니다. 이는 과거에도 동일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 왕 또는 그에 버금가는 유력자의 통치 연도를 기준으로 그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스가라는 당시 왕의 이름과 통치 연월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은 전달(기록)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전달(기록)자가 명확한 자료는 그렇지 못한 자료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됩니다. 과거에는 이를 보다 명확히 표기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가문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거나, 그의 고향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하니라’  
‘스가라’로 불리는 사람들은 구약(성경)에서만 해도 20명 이상  
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본 절에는 선지자 스가라의 아버지와 그  
의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의 조부 잇도는  
1차 귀환한 무리 가운데 포함되었던 제사장이었으므로 그는 제  
사장 가문 출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연대와 전  
달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 스가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  
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표면적으로는 조상들과 같이 죄악을 범하지 말고 여호와께  
로 돌아오면(회개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시겠다는 간  
결한 메시지입니다. 이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본 절에 3회 반복함을 통해 그들이 돌아  
가야 할 대상의 속성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만군’으로 번역된  
원어 ‘צבאות(체바오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의 직무(전쟁)  
를 수행하는 거대한 무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우주의 천체  
나 하늘의 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와 하늘과 땅의 절대 권력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절대 주권자임을 의미합니다. 영문번역 NIV는 이를 잘 반영하여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왕도 없었고, 연대도 바벨론 다리오 왕의 통치 연대를 따라야 할 만큼 비참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일깨우고 있습니다.

스가라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 스가라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7-21)

(7) 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باط 이십사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라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 때와 같이 그 연대와 전달자를 동일하게 기록하되,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의 연대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곧 스باط 이십사일’ 스باط월은 성경 전체에서 본 절에 딱 한 번 기록되었는데, 이는 바벨론식 월력의 명칭 중 하나로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1-2월을 의미합니다. 이어 이십사일이라는 일자까지 명확히 합니다. 그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 이어진

메시지가 신뢰할 만한 내용임을 강조합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두 번째 내용은 6:8까지 이어진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과 두 번째로 빨 넷과 대장장이 넷에 대한 환상을 기록합니다. 각각의 환상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먼저는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어서 선지자가 그 뜻을 묻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나라 잃은 선민의 처참한 상황(12절)을 보고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16-17)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이며, 곧이어 폐허가 된 땅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세워지고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성해질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회복될 그 성읍들을 가리켜 ‘나의 성읍’이라 명명하시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전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네 개의 뿔을 보이시며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뿔로 설명합니다(19절). 숫자 넷은 성경에서 사방, 사철 등으로 땅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네 개의 뿔은 네 개의 나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장장이 네 명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대한 선지자의 질문과 응답입니다.

(21)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흠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흠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명의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네 뿔, 즉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본문은 끝맺습니다.

선지자 호세야, 아모스, 미가, 스바냐는 각각의 선지서의 시작에 있어 그 연대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호 1:1)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암 1:1) 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미 1:1)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습 1:1)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들은 그 시작에 있어 유다의 왕을 연대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반면 학개와 스가라는 그 시작에 있어 바벨론 왕의 연대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더 이상 유다의 왕이 없음을, 멸망당한 상태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후 2019년 11월 4일. 주님은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욕망의 날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미 시작된 오늘 하루. 세상 욕망에 이끌려 생명을 허비한다면 오늘은 분명 내일이면 기억 속에서조차 지워질 것입니다. 반면 허랑방탕한 삶에 마침표를 찍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오늘은 분명 내일이 되어도 스가랴(주님께서 기억하시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한날이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벽의 재건과 성읍의 회복을 약속하심을 말씀들 통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 왕의 통치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소망합니다. 허랑방탕한 삶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용기와 더 이상 생명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오늘을 잊겠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스가랴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2.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하여 그 연대를 기록했던 기자의 붓끝이 어떠했을지 헤아려 봅시다.
3. 그 시점을 명확히 하여 기록해 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4. 기억나지 않는 하루하루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지 헤아려 봅시다.
5.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루는 어떠한 모습일지 숙고해 봅시다.

## 2

## 일어나심이니라

스가랴 2:1-13

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3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6 오히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7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9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10 여호와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11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 측량줄 환상(1-5)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며 온갖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견디고 견디어 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레스를 통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49,897명의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졌던 집과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했던 것처럼 갔습니다. 도착하여 단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까지 지키며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방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버리며 성전 건축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며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국에 왔지만,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신앙과 현실,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앞에 갈등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잠든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해 잠든 신앙인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나아가십니다.

1장에서 말 탄 자의 환상과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1-2)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측량을 하는 목적은 건물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의 터를 측량하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을 명하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비전이나 민족주의적인 편협한 열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과 동기를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라면 멈출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측량하려던 천사를 향해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성읍에 관한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여 줍니다.

(3-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가축이 심히 많으므로 성곽이 그 인원을 다 감  
당할 수 없기에 성곽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겨우 49,897명의 사람들로 시작했던 민족의  
회복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며, 실제로 2차, 3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점점 힘이 더하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 시작될 때 다수보다는 소수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일이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  
는 두려움입니다. 불이 붙지 않고 꺼져버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  
만 같은 두려움은 우리의 사역을 위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로  
부터 시작된 일이니 너희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의 말  
씀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의 숫자로 인해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말씀  
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왜지 ‘성곽 없는 성읍’이  
라는 말은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성읍이 된다는 의미처럼 들리  
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성곽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



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강한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에서 불타는 성곽이 되어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하만의 꾀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불기둥으로 애굽 병사들의 앞길을 막으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공작으로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다시금 두려움을 떨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론 순종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드리려 할 때 사회와 가정에서 온갖 위협과 박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십시오.

#### 북방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6-9)

6-9절은 북방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포로 된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9)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실제로 앗수르나 바벨론의 위치는 가나안땅의 동쪽에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의 이동경로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기에 북방 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강한 제국들의 포악함과 교만함을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귀환을 포기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던 사람들에게는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실에 안주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보다 사라질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편안함에 취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을 범하는 자는 자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체 많은 부위 중에서 눈은 아주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려 하면 자동적으로 눈을 감고, 누군가 내 눈을 공격하려 한다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백성이 그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세우시려는 마음이 본심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행하여야 하셨지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을 역으로 생각해 볼 때 내 눈이 뽑히는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11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는 자만이 눈 앞의 고통과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 회복될 예루살렘(10-13)

10-12절은 회복될 예루살렘과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0-12) 여호와와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금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볼 때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였던 배우자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이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었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품은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던 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맞으며 잔치를 베풀어주었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심한 낭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로 인해 다시 살았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멈추지 않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며 만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거처를 함께하여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만민 가운데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십시다.

(13)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마지막 13절에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을 명하며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족을 심판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처소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잠자는 것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귀환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도 이들처럼 ‘일상에 지친 그리스도인’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오시지 않고 주님 뜻대로 복음을 위해 살기에는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 좌절하고 낙망해서 일상에 지친 그리스도인이 되어 현실과 타협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해와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멀리서 방황하며 삶을 낭비하고 주께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하시며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세상 바벨론의 끝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려주시며, 지금 당장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와 희망에 동참하는 삶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일상에 지쳐 하나님과 그 나라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그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일어나 순종의 벽돌을 쌓아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가까이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현실의 벽 앞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일상에 지쳐 낙망하고 좌절해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오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순종의 벽돌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음과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고 공격을 받아 위축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안주하려고 했던 바벨론은 없는지 묵상해 봅시다.
3. 하나님의 진심은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내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임을 생각할 때 눈앞의 작은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시다.
4.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드신 것 같이 느껴 좌절과 낙망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오늘 그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감당해야 할 사명은 없는지 묵상해 봅시다.



# 3

## 내가 만일

스가랴 3:1-10

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6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짝을 나게 하리라 9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3장은 스가랴 1-6장까지 기록된 스가랴에게 임한 8가지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이전 3가지 환상이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면, 본문에서 제시된 네 번째 환상은 새로운 시대에 다가올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1-7)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편에서 사탄이 그를 정죄하며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스라엘을 참소하는 자로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법정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느 법정의 모습과 달리, 판사는 도리어 고소자 사탄을 책망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판사가 변호사의 역할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a)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본문은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변호사를 자청하시어, 피고인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으며,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와 고소자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하여 본문이 증거합니다.

(2b-3)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합니다. 불은 종종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이었지만, 아직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꺼내심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악을 제거하다’와 ‘옷을 입히리라’는 두 가지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구원 사역을 직접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쳤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라는 이러한 환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입하여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5)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는 요청입니다. 본문의 정결한 관은 대제사장의 복장 중 하나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모자로 여깁니다. 스가라는 여호와의 환상 가운데 끼어들어,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관까지 씌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 스가라는 이스라엘의 지위가 대제사장으로서는 확실하게 회복되었음을 확증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합니다.

(7)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두 개의 조건에 따른 세 개의 결과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는 조건이 성립되면, 첫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고 셋째,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다’는 결과를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분의 성전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세계를 위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는 것은 성전이 우상숭배와 죄악들로 인해 더럽혀질 것을 미리 막는 사명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 즉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의 특권과 성소를 왕래했던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 세 가지의 결과는 모두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언급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허랑방탕한 삶, 우상숭배와 점철된 죄악으로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꺼내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따름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이어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허랑방탕함으로 낭비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상숭배의 길,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과 규례를 따르라고 요청하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가 남겨져 있어 그 책임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환상에 따르는 예언(8-10)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 이어 미래에 대한 약속, 즉 예언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8-9)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예언을 통해 종말적인 사건으로 귀결됨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표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페트’는 ‘예언적인 의의 혹은 예언적 가능성을 지닌 징조’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진정한 구원자인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본문에는 그 진정한 구원자를 ‘싹’과 ‘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싹’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렘 23: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가지’와 ‘싹’은 히브리어 ‘체마흐’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2:30을 통해서 여호야긴의 자손 중 어느 누구도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지만, 23:5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는 정의로 다스리며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싹이 그러한 인물이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돌’ 또한 또 다른 메시아의 상징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었고,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었고,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으며,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이 돌에는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결국 이 돌은 무한하고 전지전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메시아의 사역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는 약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임을 또한 약속합니다.

(1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초대해서 잘 사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에 약속하신 축복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고 누린다는 의미로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은 ‘그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에’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종말론적인 날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회복이 일어났고, 이러한 회복이 중국에는 완전한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완전한 평화를 위하여 ‘썩’이시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을 낭비 해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낭비 끝에, 우리에게 남겨진 소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고, 그 구원의 은혜 끝에 온 세상이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 구원과 평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남는 메시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7)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낭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그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의 단면들을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지어감으로써, 진리의 축척, 생명의 저축으로 이어가고, 이러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 곧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 아래 만국의 백성을 초대하여 번영과 평화의 천국잔치를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 있을 때 꺼내사,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셨음을 본문을 통해 봅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경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그의 거룩한 낭비의 은혜를 입은 우리 또한 구원의 역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중국에 임할 진정한 번영과 평화의 날을 사모합니다. 그 날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그의 규례를 지침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의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소임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의 뜻이 닿아 이루어진 평화와 번영의 천국잔치에 만방의 백성을 초대하여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때, 감정이 어때했는지 묵상해 봅시다.
2.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이 없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3.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4. 여호와와 길과 규례를 따르며 생명을 거룩하게 낭비하신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4

##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스가랴 4:1-14

1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3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11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  
 이까 하고 12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13 그가 내게 대답  
 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  
 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구약성경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본국 귀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역  
 사서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 지도자가 되어 바  
 벨론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중  
 심이 될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돌아온 지 2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에  
 스라 4:24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 4:24)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짧은  
 앓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중단 16년이 흐른 시  
 점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  
 답하셨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인

도하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성전 재건이  
 방해 세력에 의해 중단되어 있으니 그냥 보고 있으실 수 없었  
 습니다. 스가랴 1:1에서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시기를 다리오 왕 2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스가랴 4장의 역사적 배경 역시 스가랴 선  
 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시기, 주전 520년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개월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니 주변에 있는 방해 세력이 가만히 있  
 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다시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에스라 5:1-2을 보  
 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 5:1-2)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영향으로 총독 스  
 룽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 재개에 동력을 얻었습  
 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왔

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들은 이 시기에 본 환상입니다. 스가랴 4장의 환상 역시 방해 세력에 굴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4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에서 본 사물은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본 순금 등잔대는 기존 성전기구 등잔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 그릇이 있다는 점, 둘째는 기름 그릇에서 7개 등잔으로 연결되는 일곱 개 관이 있다는 점, 셋째는 순금 등잔대 좌우 옆에 감람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3가지 특징은 모두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는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기름을 공급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환상 속의 순금 등잔대는 마치 무한 리필 잉크 프린트 또는 도시가스 가스레인지처럼 무한 공급 감람유 등잔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름 그릇의 감람유가 7개 등잔 각각에 관을 통해 공급되면 7개 등잔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기름 그릇의 기름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을 제공받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진 순금 등잔대인 셈입니다. 2-3절이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3)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를 개역개정 성경은  
“위에”라고 번역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하  
여”, “덧붙여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 구조상  
기름 그릇 위에 7개 등잔이 있다기보다는 위치가 그 반대이어  
야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며 7개 등잔에 각각 기름을 공  
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새번역 성경은 2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2, 표준새번역)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일곱 대롱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답을 줍니다. 6절입니다.

(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총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재건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스룹바벨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 이를 알려주십니다.

(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에게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과 함께하실 때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그 큰 산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중에 넘어야 할 산이라면 결코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한다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일을 완성하실 때, 머릿돌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9절은 스룹바벨 주도의 성전 건축이 완공될 것임을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가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이제 16년이 흐른 후 공사를 재개하는 중 비록 또 다른 방해 세력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자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시고 완성되도록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전 건축을 과소평가하며 멸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완공으로 기뻐할 사람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스투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은 건축물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건축물이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아 충격이나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림줄은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에 책임자의 손에 있습니다. 스투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건축물이 높이 쌓이고 있을 정도로 잘 진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10절 후반절에 있는 ‘여호와의 눈 일곱’은 3장 9절에서 언급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에 있는 ‘일곱 눈’입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일곱 눈을 가지신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5절에 이어 궁금한 점을 재차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11절입니다.

(11)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연이어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12)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11절과 같은 질문인 듯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감람나무 가지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감람유가 금색을 띠며 금관을 통해 순금 등 잔대의 기름 그릇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천사의 답이 14절입니다.

(14)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3-4장에서 언급되어 있고 성전 건축의 주도적 인물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을 완성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순금 등잔대처럼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무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헌신입

니다. 나아가 그 기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없이 인생  
을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의 기름을 받아 일과를 거룩한 낭비로 보내십시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  
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 한 곳에만 머  
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녀들과 교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  
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어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해  
주시고, 변함없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신앙을 위협하는 큰 산과 하나님  
의 일을 방해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의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성전 건축을 재개하자 또 다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3. 순금 등잔대는 성전의 상징물로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무엇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까?
4. 두 감람나무는 당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두 감람나무가 성전에 기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5

다시 눈을  
들어본 즉

스가랴 5:1-11

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2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 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꿰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꿰어지리라 하니 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5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이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 때에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8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9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11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1-4)

열네(14) 장으로 구성된 스가라의 전반부인 1-8장은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1:7-6:8에는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1장에는 붉은 말을 탄 기사와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에 대한 환상과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 있고, 2장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 3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있고,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에 앉은 여인의 환상, 6장에는 구리산에서 나오는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입니다. 1-4절은 여섯 번째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 증거합니다.

#### (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고개를 돌려 눈을 들어 본즉’입니다. 즉 1-5번째 환상이 동쪽을 향해서 본 것이라고 한다면, 6-8번째 환상은 서쪽을 향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1-5번째 환상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6번째부터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함으



로써,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환상을 다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아라비안나이트>와 같은 소설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 ‘마법의 양탄자’가 아니라,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지금과 같은 책에 쓴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하여 둘둘 말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려면 펼쳐야 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두고 하나님의 천사와 스가랴 선지자의 대화가 이러하였습니다.

(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는지를 물었을 때,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즉 스가

라 선지자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그 환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2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약 45.6cm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4.56m이고, 세로가 9.12m입니다.

일반적으로 육교의 평균 높이가 4.5m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루마리는 도로에 설치된 육교 아래 공간 정도 되는 대단히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루마리의 크기, 가로 10규빗과 세로 20규빗은 솔로몬 왕 때 건축한 성전에서 성소 앞의 현관(porch) 역할을 하는 주랑과 같은 크기입니다(왕상 6:2-3). 즉 그곳은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곳인데, 스가랴 선지자도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에,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쓰인 글이 이러하였습니다.

(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끝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끝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 두루마리에 쓰인 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양쪽으로 글이 쓰여 있었는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였고, 다른 쪽에는 ‘맹세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십계명 중 8번째 계명과 관련되고, ‘맹세하는 사람’은 십계명 중 3번째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십계명 중 사람에 대한 계명인 5-10계명을 대표하고, ‘맹세하는 사람’은 십계명 중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4계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3절의 말씀을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에서 ‘만군(체바오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의 우두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존재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군인 중 가장 높은 계급이 별이 5개인 원수인데,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고, 그 아래인 대장은 7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별이 만 개, 아니 무한대 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신묘막측하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 명령은 도둑의 집에, 그리고 망령되게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전소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인 죽음의 사자가 문의 양쪽 설주와 위아래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장자가 죽는 비극적인 장면을 떠오르게 해 줍니다.

특히 집을 짓는 재료인 나무는 말할 필요도 없고, 돌까지 모두 살라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진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매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 예바 속의 여인 환상(5-11)

5-11절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인 일곱 번째 환상으로 예바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환상도 여섯 번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임할 징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5)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아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

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와 같은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에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였습니다.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그만큼의 양을 담은 용기(통)이기도 합니다. 새번역성경은 ‘에바’를 ‘뒤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가정마다 뒤주(쌀 뒤주와 콩 뒤주와 같은 잡곡 뒤주)가 있었습니다. 보통 쌀 뒤주는 쌀 1-2가마(80-160되)의 크기였지만, 잡곡 뒤주는 3-4말의 크기였습니다. 갑부집에는 70가마 뒤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바는 22ℓ(리터) 분량이었습니다. 1.2말(12되)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안에 곡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 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납으로 된 뚜껑으로 닫힌 에바를 스가라 선지자가 열었더니,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에바는 22ℓ보다는 조금 더 큰 것으로 여깁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그 여인을 악이라고 의인화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거나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음녀를 따른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퍼지지 않도록 다시 그 여인을 에바에 던져 넣고 납으로 된 뚜껑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물들지 않고, 또 악이 퍼져 전염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또 다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 여인들은 학의 날개를 가졌다고 하며, 악이라는 여인을 담은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레위기에서 학은 부

정하여 먹지 못하는 조류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정하냐 부정하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바를 들고 날 수 있을 정도로 큰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10-11)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환상에 집중하던 스가랴 선지자는 갑자기 두 여인이 에바를 붙잡고 공중으로 날아가자, 천사에게 여인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한 계시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질문이 깊고 넓을수록 하나님의 답변도 깊고 넓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진지하고 신실할수록, 하나님의 답변도 은혜롭고, 실재적이 됩니다.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에바를 붙잡고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물었을 때, 천사는 시날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신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완성되면 그 안에 둘 것이라고 합니다.

B.C. 605년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와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끌고 갔고, 성전 기물도 탈취하여 자신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는데, 그곳이 ‘시날 땅’이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온 세상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을 때 교만이 극에 달했던 사람들이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곳,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바로 ‘시날 땅’이었습니다.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거룩한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죄악과 심판의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악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병든 이기심과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이 화려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죄와 사망의 법 옆에서 기웃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죄



악 된 삶에서 떠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떠났고, 떠나야 할 죄악 된 삶에는 붙어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저 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허랑방탕하여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출발이자 마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는 것보다 인생을 더 잘 세이브(저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만큼 영원 속에서 저축하고 사시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두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아다니는 그렇게 큰 두루마리가 없어도 우리 가까이에, 아니 우리 손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려고 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멀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달콤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돋보이게 해 준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고 살아감으로, 허랑방탕의 낭비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위해 낭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영원 속에 축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 스가랴 선지자는 악이라 하는 여인을 담은 에바를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시날 땅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당신의 삶에서 끊어낸 악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고 살아가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6

##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스가랴 6:1-15

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2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3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4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6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7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8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9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11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썩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 그가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14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

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와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15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  
 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 병거의 환상(1-8)

오늘 본문에서는 스가랴가 보았던 8번째 마지막 환상이 나옵니다. 1절에 스가랴는 두 개의 구리 산에서 네 개의 병거(전차)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병거는 ‘붉은색, 검은색, 흰색, 얼룩색’의 말들이 각각 끌고 있었습니다. 병거란 전차며,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4-5절에 스가랴가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천사에게 물어보니, 천사가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병거들은 바람인데, 바람은 성경에서 영을 의미하며, 곧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6-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병거들은, 검은 말은 북쪽(바벨론)으로 나가고, 흰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룡진(얼룩색) 말은 남쪽 땅(애굽)으로 나가고, 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병거가 이끄는 말들의 색깔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또는 방법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전쟁과 피 흘림,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며, 검은색은 ‘곤고함과 죽음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승리와 변영’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얼룩색은 ‘기근과 질병의 혼합’ 상태를 의

미하는데, 이 어룽진 말이 건장하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완전성과 철저함을 상징합니다.

(7-8)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7절의 건장한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땅에 두루 다녔습니다. 이들이 온 땅에 두루 다니며 했던 일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온 세상을 다녔다는 것은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의 사자들은 세상 어느 곳, 어느 구석도 예외 없이 다니며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 처음 난 것은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양의 피로만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은 바로 어린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병거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기동성을 갖춘 가장 강력한 전쟁 도구였습니다. 병거의 숫자는 한 나라의 군사력이며, 병거군이 출격할 때는 매우 빠르고 거칠게 달려 그 주변은 진멸됩니다. 말발굽과 바퀴는 매우 단단하여 병거들이 지나가면 말발굽과 바퀴들로 인해 단단한 돌들도 길에서 바깥으로 튕겨 나가거나, 으깨져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울퉁불퉁했던 길들이 평평하게 다져지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곳을 두루 다니는 병거들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도 두루 다니며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심판할 것은 심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삶 속에서 책망의 길이 아닌 다른 길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운 길, 눈물의 길, 근심과 걱정의 길’을 빠르게 달립니다. 그때는 심판과 책망의 병거가 아니라, 회복의 병거로 변화 됩니다. 병거의 변화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공황을 구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울퉁불퉁하고 돌들이 깔린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병거들을 보내어 우리 삶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십니다.

잠언 5:21에도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 여호수아의 대관식(9-15)

(9-12)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씌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

9-15절까지를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에 포로 귀환자들인 ‘헬대(헬렘), 도비아, 여다야, 요시아, 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은과 금을 취해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포로 귀환 당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도록 물질적 헌신을 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당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시작하거나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답답함도 있었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그들은 헌신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헌신하여 만든 면류관은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훗날 ‘여호와와 전’에 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전 재건은 말씀으로 이어가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이어가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으로 내 삶을 직면해야 합니다.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을 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 아니었기에,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에, 욕심에, 추악한 죄악들”에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우린 그 은혜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되면 회사 일이 힘들어도,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누가 내 차를 박아도, 미소를 지으며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않을 때, 즉 말씀에서 떠날 때, 우리는 다시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조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잠시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던 주인공은 병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 속에서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타인의 무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가진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악의 악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기본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광대 일을 하러 갈 때 자주 오르던 계단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착하게 살려고 할 때는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이 터벽

터벽 대며 너무 힘겹고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가려 할 때는 너무 쉽고, 즐겁게 춤을 추면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포기하면,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삶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즐겁다고 춤을 추며, 죄악에 빠져 흥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심판과 책망의 병거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 높은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것이 힘에 겨운 것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오직 작은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12)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썩이라  
이름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썩’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아주 작은 새썩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썩이 자라 결국 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의 한결음의 출발은 바로 이 작은 ‘썩’입니다. 썩만 보았을 때, 언제 자라는지……. 기대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려고 한결음씩 노력할 때, 결국 이 썩이 커

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이라는 것은 기억입니다. 14절에 성전 건축과 면류관을 만드는 것에 헌신했던 이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를 위해 디모데후서 4:17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내 곁에서 서서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소리를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동안 낭비로 일관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삶을 끊게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때, 사자와 입과 같은 수많은 문제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병거를 보내어 이 세상 곳곳을 두루 살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나온 것과 현재의 삶을 병거를 보내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허랑방탕한 낭비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병거를 통해 다져주시고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또한 힘겨운 삶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은혜와 회복의 병거를 통해 하나님이 내시는 평탄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삶에서 성전 재건이 힘들어 시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루 한걸음씩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지어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힘겨워하지 않도록, 언제나 내 곁에서 서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삶의 말씀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듣게 하시며, 혹여나 사자의 입과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병거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심판의 명령을 행했듯이,  
내 삶에서 책망 받고 버려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2. 병거가 길을 지날 때, 길이 곧아지고 평탄해지는 것처럼 내  
삶에서 평탄해져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3. 성전 재건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삶입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 말씀에 사로잡히고 지어져 가는 삶을 위해 내 속에 심은  
씨를 키우기 위한 노력과 방법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7

#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스가랴 7:1-14

1 다리오 왕 제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2 그 때에 벵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깸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4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8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

군의 여호와와 말하였느니라 14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1-7)

열네(14) 장으로 구성된 스가라의 전반부인 1-8장은 8개의 환  
상과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다리오 왕 제 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스가라에게 임하니라 그 때에 벳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겔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스가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후(1:1) 2년 뒤 다  
리오 왕 제 사년(주전 518년)에 벳엘 사람이 한 무리를 이끌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다수의 학자는 바벨론에서 귀  
환한 사람들로써 벳엘에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로 추  
정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질문을 합니다.

(3) 만군의 여호와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벧엘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질문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입니다. 오월 중에 행하던 금식은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상기하기 위한 것입니다(왕하 25:8-9). 질문의 요지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완공되어 가는 상황에서 계속 금식을 해야 하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5)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나

금식에 대한 질문은 벧엘에서 온 사람들이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였습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상기하는 것이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달랴와 백성의 죽음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왕하 25:25).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금식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칠십 년 동안 했던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은 칠십 년 동안 매년 금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이 금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린 사건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의미는 흐려지고, 단순한 종교 행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금식이 종교 행위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공로나 보상의식으로 생각하며 변질됩니다. 오늘날 이슬람권과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하며 금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금식, 작정기도에 대한 공로의식, 보상의식이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했던 금식의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6-7)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먹고 마실 때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 10:31) 해야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금식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켜 오던 종교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평온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매주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회에 나와 각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를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8-14)

8-14절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11)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스라엘에는 많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먼저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으며, 사회적 약자(과부,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삶에서 공의와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며 귀를 막았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만들어 내는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12-13절이 증거합니다.

(12-13)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해졌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심판받게 됩니까? 금식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외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막을 내립니다.

(14)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 흩었다고 하시며 아름다

왔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금식 하며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보다 자신의 말을 청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침묵 기도를 합니다. 침묵 기도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둘째 아들은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영적으로 침체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힘쓰거나 우리의 간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은총의 현상이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이것이 종교 행위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정욕과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닌지 돌아봅시다.
2. 이스라엘은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도 고난이 다가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지 묵상해 봅시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삶에서 부조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부조리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결단해야 할 것을 적어 봅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의 삶에서 침묵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봅시다.

8

#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스가랴 8:1-23

1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3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었고 만군의 여호와와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7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0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샅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샅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11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

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  
 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  
 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  
 니하였으나 15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  
 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6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  
 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  
 평한 재판을 베풀고 17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  
 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와 말이  
 니라 18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 만군의 여  
 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  
 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  
 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20 만군  
 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  
 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  
 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  
 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  
 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 예루살렘 회복의 약속(1-17)

열네(14) 장으로 구성된 스가라의 전반부인 1-8장은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장이 8개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7-8장이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7장과 8장의 배경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4년입니다. 그 때가 B.C. 518년입니다. B.C. 520-516년까지 4년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성전 건축이 한창일 때입니다. 1-17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과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1-2)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질투하신다고 하니깐 약간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 anthropomorphism)’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활동, 감정을 하나님께서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반려동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알아

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투’는 ‘열심’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절대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좋은 예는 ‘부부’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나 외에 여러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할 때,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엉뚱한 삶을 살 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3)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동사가 있는데, ‘돌아오다’와 ‘거하다’입니다. ‘돌아오다’는 ‘회개하다’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미 먼저 돌아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다(사칸)’는 ‘임시적

으로 체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거주하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를 '진리의 성읍', 여호와와 산(시온산)은 '성산\_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4-5)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망하고 난 후 예루살렘에는 늙은 사람들과 소년 소녀들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자녀도 낳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잡을 때까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인데, 문자 그대로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참 이런 도시, 이런 나라가 좋은 도시, 좋은 나라입니다.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당시 예루살렘은 참 황량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서 70여 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어서 자원자들과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정비가 된 것도 없었고, 외적이 침입하면, 공격대상 1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나이가 든 남녀가 살게 될 것이고 소년 소녀들이 뛰놀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보기에 신묘막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두 구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손을 견고히 할지이다’입니다. 이것은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짓는 성전은 외형적으로는 참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크기나 건축재료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12)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땅이 곡식을 결실하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는 일이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  
입니다. 과거에는 어떠했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4-15)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과거에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도끼로 장작을 내리치면 장작은 찢쩍 갈라집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도끼날로 장작을 내리치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 ‘격노하다’입니다. 조상들이 지키지 않은 결정적인 두 가지 죄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먼 이방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16-17)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진리, 진실, 공평, 화평과 같은 것들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금식에 대하여(18-23)

18-23절은 7장에서 질문했던 금식에 대한 실제적인 답변입니다. 7:2-3에 보면, 베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 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었습니다.

(1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넷째 달의 금식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인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4월 금식에서 약 한 달 후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날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임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야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열째 달의 금식은 다섯째 달의 금식의 약 2년 전입니다.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2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포위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되찾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금식의 날들

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은 내가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쁨’, ‘즐거움’, ‘희락’ 등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야의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금식일을 축제일로 바꾸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23)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에는 유다 백성과 이방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에서 ‘열(10)’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이 모두 52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 8장에만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여러 강변에서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좌절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던들 결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깨우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보다 더 함께 잘 지어져 가는 방법이 없고, 그것보다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사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삶으로 순종하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이제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일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대용품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이 속삭이는 소리, 세상이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인생의 허허벌판을 경험했다면, 그 벌판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은총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날들을 영원한 기쁨의 날로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시온산은 ‘성산(聖山)’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진리와 거룩(구별됨)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당신이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없었던 예루살렘을 늙은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가 사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당신을 회복시켜 주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일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금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금식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바꾸어주신 일이 있습니까?
4. 세속적 가치관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9

# 간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스가랴 9:1-17

1 여호와와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2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3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도다 4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5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6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7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잇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박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테 강에

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 갇혀 있으나 소망  
 을 품은 자들이 너회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  
 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3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  
 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  
 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4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 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  
 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15 만군의 여호  
 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못맷돌을 밟을 것이  
 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  
 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16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 같이 구원하  
 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니 17 그의 형  
 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총 14장으로 구성된 스가랴의 전반부인 1-8장까지는 8개의 환  
 상과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  
 게 되는 후반부인 9-14장까지는 시와 같은 운문이 많이 등장하  
 며, 문체나 어조에서 전반부 말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내용은 스가랴의 전반부와 유사합니다. 미래의 구원과 메  
 시아적 인물이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합  
 니다. 신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스가랴 9-14장의  
 표현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유다의 주변국들을 여호와께서 꺾으신다는 것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1-8)

1-8절은 마치 원정을 떠나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듯이 여러 지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하맛, 두로, 시돈처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지만, 막강한 재력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지혜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은채하는 교만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4)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은 유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재앙을 단단히 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교만함은 반드시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획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정의로운 심판이 행해지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뤄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눈으로 친히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쉽게 드러나며 결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고신대학교의 교훈은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우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하는 것처럼 늘 스스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언제나 의

식하고 스스로 자신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한 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어떤 인간적인 준비나 지혜도 가차 없이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신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갚아 주시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 시온에 입성하는 평화의 왕(9-10)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의 왕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왕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정도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승리의 왕이지만 대적들을 잔혹하게 정복하지 않고 화평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그분의 통치가 임합니다. 오히려 포악하고 교만한



이들은 이제 더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평화와 겸손의 왕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십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공의롭지만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경쟁이 참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경쟁하며 애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자신만을 높이는 태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겁니다. 공의로우면서도 겸손하신 예수님, 몸소 섬김을 실천하며 사랑이 많으셨던 예수님처럼 교만과 폭력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심(11-17)

(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당시에는 물구덩이가 깊어서 그곳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종종 사람을 가두어 놓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이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멸시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주셨고 친히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12)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가 어디에 끼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머리가 빠지지 않아 너무 당황하여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갇혀 있을 때 소망을 품는다는 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급격하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 방법의 틀대로만 구원을 이

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상한 심령으로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 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출구가 다 막혀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을 때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16)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에 이어 다시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실 전쟁의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 회복하지 않으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왕관의 보석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박을 풀고 돌아올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만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공허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12a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소망을 잃어버리고 간혀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유다의 주변국들처럼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보고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3.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기 위해 가장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처럼 당신은 지금 속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4. 감히 있으나 소망을 품은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 이제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봄비가 올 때에

스가랴 10:1-12

1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2 드라빔  
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  
로 곤고를 당하니 3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솟임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  
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4 모퉁잇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  
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 싸울  
때에 용사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6 내가 유다 족  
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  
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  
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7 에브라임  
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  
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8 내가 그들  
을 향하여 회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  
이라 그들이 전에 변성하던 것 같이 변성하리라 9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들 가운데 흠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10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앓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11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앓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2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구하라, 주시리라(1-7)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어 10장은 유다 지파를 통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1)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봄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마철임에도 비를 만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올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마 5:8a)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주관하시는 공급자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흠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소낙비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아니라 채소를 싱싱하게 자라게 할 만큼 충분한 비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흠족한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2)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드라빔은 ‘가정의 신’을 뜻하고 복술자는 점쟁이입니다. 생명이 없는 드라빔이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복술자에게 무슨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구할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허탄한 것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헛된 것입니다. 위로받을 일이 있으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십시오.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흠족한 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 원하십니다. 자연법칙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허탄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유리하고 곤고함을 당한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3)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솟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양들을 방황하게 만든 목자, 즉 거짓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시겠다고 합니다. 숫염소 역시 거짓 목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숫염소는 고집이 세며 심판의 대상에 속하는 무리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 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마 25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숫염소를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거짓 목자와 숫염소를 징계하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시고 전쟁의 준마같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준마는 힘 있고 민첩한 말인데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필수전략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준마 같게 하리니’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뜻입니다.

(4-5) 모퉁잇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모퉁잇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는 모두 중추적이고 큰 힘을 가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즉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가리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5절에서 주어는 3인칭 복수 ‘그들’입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로서 용사같이 원수를 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힘을 주실 때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강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승리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얻는 힘입니다.

(6-7)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히 할 것이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이 둘은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나아가 요셉 족속은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해 선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디서 돌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

한 때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리니’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 돌아오지 못하고 세계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공효의 결과입니다.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이 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남유다 족속과 대조적인 북쪽 족속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또한 6절의 요셉 족속처럼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들 역시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영광과 기쁨을 볼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 휘파람을 불어, 구속, 견고하게 하리니(8-12)

(8)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백성을 모으신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부는 휘파람처럼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어 백성을 인도하여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맬 때도 부르시고 탕자처럼 집을 떠났을 때도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려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번성이 있습니다.

(9)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흠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8절의 말씀처럼 부르셔서 모으시는데 흠으셔서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백성은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입니다. 또한 세계 처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끝날에 모든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소집하면 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세상의 끝날입니다. 이날을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십시다.

(10-11)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들은 세계 처처에 흩어져 있는 선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이 돌아오는 출발지를 알려주시는데 애굽과 앗수르라고 하십니다. 애굽과 앗수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고 빈들과 같은 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으로부터 돌아올 때 사람들의 수가 많아 차고 넘쳐서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과 요단강 서편의 레바논까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것인데 이 때 바다 물결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와 바다 물결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의 장애물을 치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일 물이 마르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강대한 나라 앗수르와 애굽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약화되고 몰락될 것입니다.

(12)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고하게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것입니다. 지금 광야와 빈들과 같은 곳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광야와 빈들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흠족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듯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조차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것임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 이외에도 항상 있는 태양과 공기를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거짓 목자와 숫염소가 득세하는 세상, 애굽과 앗수르와 같이 강자의 횡포가 있는 세상에 내몰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휘파람으로 부르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언어로 그분을 달리 표현해 보십시오.
3.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십니까?
5. 흠족한 비를 맞으며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은총이라 하며 연합이라 하고

스가랴 11:1-17

1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2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라다 바산  
의 상수리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엷드러졌도다 3 목자들의 곡  
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라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라다 4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5 사들인 자들  
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  
기지 아니하는도다 6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  
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  
하리라 하시기로 7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  
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새 8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  
라 9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  
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  
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11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

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삷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삷을 삼은지라 1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아린 바 그 삷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14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16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흠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굵을 찢으리라 17 화 있을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 요단의 무너짐(1-3)

열네(14) 장으로 구성된 스가랴의 전반부인 1-8장은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9-14장은 겸손한 왕이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중에서도 후반부의 앞부분인 9-11장은 메시아가 오실 때 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목자와 하나님께서 배척하시

는 거짓 목자를 서로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1-3절은 거짓 목자에게 유혹되어 바르게 인도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맞닿은 지역인데, 백향목의 주산지였습니다. 모세가 므리바에서 있었던 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자, 그가 읊소했던 내용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왕궁이나 신전 등 귀한 건물을 지을 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차출했는데, 그중에서 1만 명을 1달씩 레바논으로 보내서 백향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이 2달은 집에서 머무르고, 1달은 레바논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자긍심이 강한 레바논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서 백향목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 올 때도 북쪽에

서 쳐들어 내려왔고, 후에 로마 제국의 군대도 북쪽, 시리아 방  
면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2) 너 잣나무여 곡할지여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곡할지여다 무성한 숲이  
없드러졌도다

잣나무에게, 그리고 상수리나무에게 ‘곡을 하라’고 말씀하십  
니다. ‘곡하다(알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1절에 나온 백향목과 더불어 잣나무, 아름다운 나무, 상수  
리나무와 3절의 목자들, 어린 사자 등은 전부 지도층에 있는 사  
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악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입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쪽의 광활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바산  
북쪽에 ‘헬몬산’이 위치해 있고, 남쪽에는 길르앗이 있으며, 서  
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는 지도자 중에서  
특히 종교지도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패  
한 정치 지도자와 경제 지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종교 지도  
자들도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3)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며 이는 요단의 자람이 쓰러졌음이로다

‘목자들’은 문자적으로는 양 떼를 치는 사람들을 뜻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보다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영화로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쓰러진다고 합니다. 또 ‘어린 사자’는 갓 태어나거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미 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크기가 아니라, 스스로 사냥이 가능한 ‘젊은 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단의 자랑’은 요단강이 범람하여 생기는 비옥한 농토를 의미하거나, 요단강 근처의 뺨뺨한 숲을 지칭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는 곡식이나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동물이 있어야 사자가 잡아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사라지고 숲이 사라지면 초식동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자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말로 ‘앞으로의 일이 어렵고 험하겠다’는 의미로, ‘곡소리 나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다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고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것 자체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선한 목자를 배척한 벌(4-14)

4-14절은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당할 수난과 행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4)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 떼’는 장차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당하거나, 빼앗겨서 도살장으로 끌려갈 양 떼를 뜻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선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시하시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망할 것이니 그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유다가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힌놈의 골짜기에서 도자기를 깨뜨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고, 증서를 만들어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는 포로가 되는 것과 같은 지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 후 1948년 독립하기까지 약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5)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 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물건처럼 거래하여 이득을 보는 세 부류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들인 자들’, ‘판 자들’, ‘목자들’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양 떼를 돌보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또 도살하기 위해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모든 세력을 뜻합니다. 그들은 남의 나라를 짓밟고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판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포로 상태가 되도록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서도 단지 자신들의 소유가 늘어난 것에만 만족했습니다.

‘목자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바른길을 제시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이 없었고 병

아리 눈물만큼의 공허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8)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무도 양 떼를 돌보려고 하지 않으니, ‘내(메시아)’가 양 떼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막대기(원리)가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십니다. ‘은총’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받아주시는 사랑을 의미하고, ‘연합’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약 200년 전에 무너진 북이스라엘도, 여러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도 함께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한 달’은 아주 짧은 기간을 뜻하고, ‘세 목자’는 유다의 마지막 세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의미할 수도 있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직책,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증거합니다.



(9-10)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려  
는 사람들은 내버려 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서로 잡아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총’  
이라는 막대기는 꺾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목자의 보호  
에서 벗어난 양은 기갈하여 죽든지, 맹수의 먹잇감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총과 연합으로 양 떼를  
먹였습니다(7절). 그러나 양 떼의 세 목자는 참 목자를 배척하  
였습니다(8절). 이에 참 목자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  
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삷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삷을  
삼은지라

참 목자가 자신의 품삷을 달라고 하니까, ‘은 30개’를 주었  
다고 합니다. 참 목자는 아무리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해도 품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한 삶을 사니까, 속이 상해서 “내 품삷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품삷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품삷으로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참 목자의 수고를 형편없이 여긴 것입니다.

(13-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아린 바 그 삷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으셨다고 합니다.

### 악한 목자의 멸망(15-17)

15-17절은 양 떼를 삼키고 멸망시키는 악한 목자의 등장과 멸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6-17)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흠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악한 목자는 없어진 양들에 관심이 없고, 양들이 흩어져도  
찾아 모으지 아니하고, 다쳐도 치료해 주지 않고, 튼튼한 양은  
먹이를 주지 않아서 야위게 만들고, 살이 잘 오른 양은 잡아먹  
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목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  
다. 팔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오른쪽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은 판단력과 통찰력이 사  
라진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참 성전 건축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참 목자  
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예배당을 갖는 것보다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과 메시아의 관계를 양과  
참 목자로 표현합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  
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직면하게 되는 것은 언  
제나 맹수들이 득실대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임을 잊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 목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며,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성전을 짓는 것도 목자와 더불어 살며, 목자를 목적으로 삼고 살기 위함입니다.

바라옵나니 한순간이라도 목자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를 뒤따른 삶을 한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백향목은 레바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혹 당신을 굳게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사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2. 참 목자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양 떼를 먹으신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연합(혹은 사람과 연합하게 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3. 참 목자이신 주님은 거짓 목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경험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4. 참 목자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 12:1-14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2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3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4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5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6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헛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7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와 사자 같을 것이라 9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

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рода 11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 온 땅 각 족속이 따  
 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3 레위의 족속이 따  
 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  
 들이 따로 하리라

소설 상록수로 유명한 심훈 시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人聲)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리까.

일제로부터 민족 해방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걱정적이고도  
 직설적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 기쁨이 너무도 커

서 주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소망하며, 어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부터 멸망 이후 침묵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났고, 메시아 사상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묵시문학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그가 오셔서 보수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사상은 구약의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도 ‘그날’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며, 이는 임박한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1차로 의미하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될 일을 포함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14장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비유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도 메시아 예언이 등장합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메시아의 고난과 그에 따른 백성의 애통을 묘사합니다.

###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1-9)

12:1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경고보다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12장 전체의 서론입니다.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은 온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셨으며 특별히 사람 안에 심령을, 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그리고 초청의 말씀을, 어떤 때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매 순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2-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공격하는 자들, 이방 족속들에게 피해가 가게하고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3)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먼저 예루살렘을 치려는 세력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술잔이 되어서 주변의 공격해 오는 자들을 취하게 하는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바위와 같게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노략하려는 자들은 그 돌을 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성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되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외부의 공격,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말들을 치시고, 말 탄 사람들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대 백성은 지키시고 모든 이방 민족의 말들은 눈이 멀게 하십니다. 그럴 때 5절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은 재력과 무력으로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기보다 세상의 힘과 물질과 권력에 의지

하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는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함께 하시며 곡식단 사이의 화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불사를 것이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이 나무를 태우고 햇불이 곡식을 사르듯이 대적들을 압도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려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간에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가 깨지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보호막으로 그 공격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공격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낙심하게 하는 공격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9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영광을 누릴 것을 강조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고, 반대로 자기 백성을 치러 오는 모든 대적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예루살렘은 높고 견고한 성곽이 있었고, 유다 장막은 주변의 촌락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연약한 곳을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승리의 영광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사모하고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8-9절은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8-9)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보호하시는 ‘그날’에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중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처럼 강하고 용맹하며 전쟁에 능한 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며 역사입니다.

#### 모든 족속의 애통(10-14)

10-14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 모든 족속이 각각 크게 애 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이며 그를 깨닫는 자들이 겪게 될 회개에 대한 예언입니다.

(10-11)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찢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맛지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들

어오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모를 겪으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37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구절이 성취되었다고 적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7에서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때, 자신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온 인류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주님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11절에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입니다. 므깃도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바로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했던 곳입니다. 당시 백성이 슬피 울며 애곡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들을 위해 애통하고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비는 영을 주셔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14절까지는 그 애통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의 부류를

열거합니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며, 가족마다 따로 슬피 울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은 유다 왕가를, 나단의 족속은 다윗의 아들 가문을, 레위 족속은 제사장 가문을 의미하며, 시므이의 족속은 레위의 손자 중에 있었던 가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남은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실 그날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과업, 사명이 아직 남아 있기에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충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언급한 심훈 선생은 이 민족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하루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영적인 빈 들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신음하며 곤고한 삶을 사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오늘 하루와 우리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찢은 자들이 모두가 애통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빈 들이나 광야에서 곤고한 삶을 사는 한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한 날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일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2. 그를 찢은 자들이 모두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 눈물로 회개했던 때는 언제였으며, 지금도 그 애통함을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3.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신뢰하며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은 빈 들이나 광야에 있는 사람도 불러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스가랴 13:1-9

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3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4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5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6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나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8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일은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온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1-6)

오늘 본문 13장은 12장에 이어서 ‘그날’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 그리고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역들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 정화의 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이들이 야외놀이터에서 실컷 놀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흙먼지와 지저분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세숫대야나 세면대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방에 들어가지 말고 일단 씻으라고 화장실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주섬주섬 옷을 벗고 온몸의 더러운 것을 씻고 밥을 먹거나 방에서 쉬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씻지 않고 침대에 눕거나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는 용납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의 몸에 묻은 오물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받아주시지만, 그 자녀의 죄와 더러움까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백성을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는 샘’ 곧 ‘정화의 샘’을 열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샘은 비가 오는 날만 생기는 그런 샘물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백성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정화의 샘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샘은 언제라도 하나님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기 위해 열려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단번에 눈보다 희게 씻는 놀라운 샘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가복음 2:5에 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샘이 되십니다. 누구든 그 샘에 들어가면 정결해 집니다. 우리도 그 샘에서 씻은 자들입니다. 그 샘으로 정결케 되었고 과거의 죄와 더러움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샘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그 샘에 온 자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낡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끊어버릴 것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거짓 신지자,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 세 가지 대상의 공통점은 바로 ‘거짓’입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 곧 ‘거짓 신’입니다. 거짓 신지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도록 속이는 ‘거짓 일꾼’입니다. 또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을 떠나면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유혹하는 ‘거짓 영’입니다. 이 거짓 신, 거짓 일꾼, 거짓 영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죽어나간 하나님의 백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에 그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 된 우리는 지금도 내 삶에 거짓을 제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대상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는 ‘거짓 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아닌 세상의 교묘한 메시지와 형통만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탐욕의 제국을 섬기도록 하는 ‘거짓 일꾼’들의 메시지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짓 영’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날 거룩하여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자녀가 거짓을 예언하면 그 부모가 칼로 찌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예언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은 거짓도 버리려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처럼 작은 거짓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 내 삶에 남아있는 작은 거짓의 그림자들이 진실의 빛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도, 한국교회에도 거짓된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직의 빛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합니다.

(4-6)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나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4-6절은 그 거짓된 것을 제거하시고 거룩하여진 공동체에 더는 거짓된 선지자가 발을 붙일 곳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 거짓 평안을 외치며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 털옷을 입고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어릴 적부터 농사짓던 사람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우

상승배를 위해 자해를 한 자국들을 가지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생긴 상처라고 거짓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 우실 그 나라는 거짓이 발을 붙일 곳이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탄로 나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때론 거짓의 일에 동참하고 동조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거짓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의 부끄러움은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끄러운 거짓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된 털옷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앞에 나아가 씻고 돌이켜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 연단하시는 하나님(7-9)

7-9절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9)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모든 것을 명하시고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거짓 목자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선한 목자, 하나님과 짝된 자  
 를 칼로 치라고 합니다. 그 칼은 아군을 향한 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도대체 어떤 왕  
 이 자신이 신뢰하는 자기 사람을 칼로 치라 하겠습니까? 그러  
 나 이 말씀은 성취되어 하나님의 칼날은 그대로 선한 목자 되  
 신 예수님의 온몸을 난도질하였고 그 몸에서 나온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자  
 가 우리를 위해 희생의 자리에 섰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주어지며 그 과정을 통해 은처럼 연단되고 금같  
 이 제련되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는 믿는 자가 이루어 가는 성화의 길을 설명하고 있  
 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꽤 괜찮은



사람처럼, 꽤 의인인 것처럼, 꽤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갈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더러운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그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정결의 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온몸이 더러워진 아이를 씻기는 부모처럼 우리를 정결의 샘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고 은과 금을 제련하시듯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는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그 백성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거짓의 씨앗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거룩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혹시 돼지우리 같은 빈 들이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처량한 신세이십니까? 죄와 더러움으로 얼룩진 의복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돌이켜 정결케 하는 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고 그 피로 정결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끝까지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야 마실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정결하게 하는 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샘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열린 샘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샘에 나아가 거룩하여진 무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어떠한 연단과 시험이 찾아와도 나를 다듬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나 자신과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한 샘을 만드시기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제거하려 하셨던 세 가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며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하신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3. 거짓 선지자가 부끄러움 속에 선지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며 또 거짓을 말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며 내 삶에 거짓된 부분이 없는지 진실된 삶의 길을 걷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4. 범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픈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 여호와와 날

스가랴 14:1-21

1 여호와와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6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0 온 땅이 이라바 같이 되되 계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

도주 켜는 곳까지라 11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  
 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12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썩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  
 이요 13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  
 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14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  
 니 이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15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  
 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  
 지 아니하실 것인즉 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  
 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 애굽 사  
 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20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술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술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술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  
 니하리라

### 여호와의 날(1-11)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스가랴 14장의 여호와의 날은 전쟁의 날로 묘사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 인애가 넘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재물과 성읍을 약탈하고, 성을 함락시키고, 부녀자들을 욕보이고, 백성의 절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2)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하나님이지만 2절 말미에 설명하듯, 백성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절반이 남아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절반을 이스라엘에 보존하시는 것과 아울러 직접 나서서 이전에 자기 백성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를 물리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시며, 감람산을 동서로 갈라 그 가운데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할 수 있도록 살아남는 방안을 친히 마련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룩한 자들, 곧 천사들과 함께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3-5)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남동쪽의 감람산이 갈라지며 길이 뚫과 동시에, 산들의 위치가 달라져서 이전의 골짜기들이 메워지게 됩니다. 곧 남서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는 감람산이 갈라진 덕분에 더 이상 골짜기가 아니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고대 역본을 참고하면서 5절 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를 조금 달리 읽어서 ‘힌놈의 골짜기가 막힐 것은 골짜기가 산허리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로 옮기고 있습니다.

힌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방신을 섬길 사당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식을 불태워 죽였던 참혹한 장소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도 없었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렘 7:31). 이스라엘이 이처럼 참혹한 일을 행했던 동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 세상 길로 걸어가 세상이 열망했던 것을 함께 추구한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힌놈의 아들 골짜기는 죄의 가능성의 자리, 언제든지 유혹 받는 자리, 삶 속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 늘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곳입니

다.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그의 아들, 심판관과 구원의 날에 혼  
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아예 메워버리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듯 오늘 우리에게  
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졌  
던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메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처럼  
넘어지던 죄의 자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다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구원받은 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이전에 주를 알  
지 못하던 삶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혹했던 전쟁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될 삶  
의 터전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어져도 빛이 있을 것이고(6-7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 항상 흐르게 될 것입니다(8절).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며(9절), 다른 지역은 평지가 되지만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올라 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찌는  
곳까지라



여기서 아라바는 요단 저지대를 말합니다. 요단 저지대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인데,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땅이 요단 저지대만큼 낮아지고 그만큼 예루살렘이 돋보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00m 이상 고도에 위치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주변부와 예루살렘은 약 1,100m 이상의 높이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우뚝 솟은 예루살렘이 주변 저지대를 아우르는 모양새가 연출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10-11절).

여호와와 그의 아들, 곧 누구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궁극적 회복이 나타나는 이 날에 대한 스가랴 14장의 약속들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인 22:1-5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 22:1-5)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왕노릇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붙여 일했던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관계였어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일터,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12-21)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처음을 기억하려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맥락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우주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17)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농사를 짓는 데는 물이 필요합니다. 관개농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세계에서 비의 시기와 양은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비를 신의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풍요의 신이 늘 존재했었고, 가나안에서는 바알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비를 주겠다, 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생명을 보존하여 주겠다, 주지 않겠다와 동의어입니다. 단순히 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명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바알의 주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상마저 만들지 말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에 살펴보았던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받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때는, 내가 원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던 때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을 우리 안에서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집안의 하찮은 물건 하나, 심지어 말 방울 하나까지도 거룩한 것이 됩니다.

(20)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전에 있는 모든 술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받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구원받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을 은혜로 걷고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해주실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얻은 구원인데 그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봅니다. 죄의 가능성을 익히 아시고,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메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구원받았으면서도 습관처럼 짓던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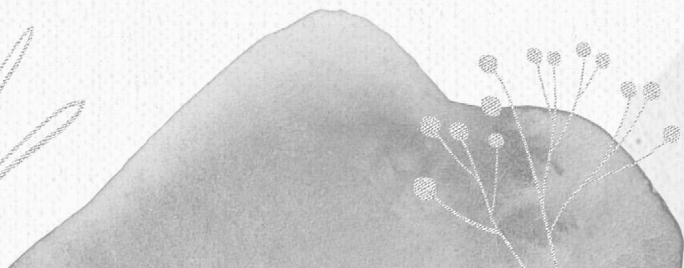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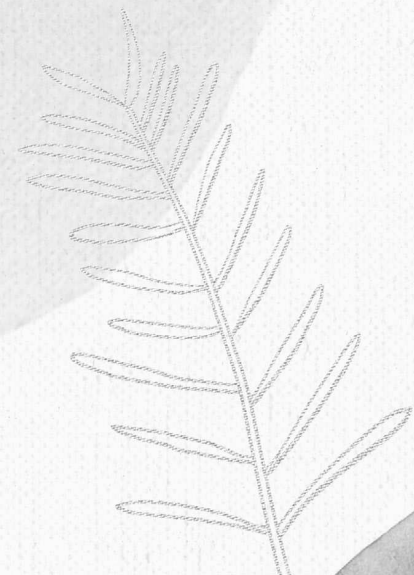
## 묵상을 돕는 질문

1. 스가랴 14장에 나타난 여호와와 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5절)
2.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날 징조를 정리해 보세요.  
(6-11절)
3. 구원받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16-18절)
4.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를 세 개만 써보세요.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 말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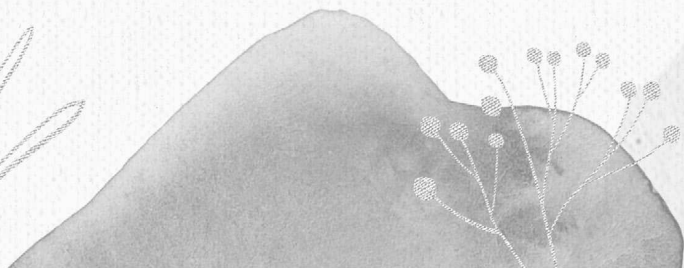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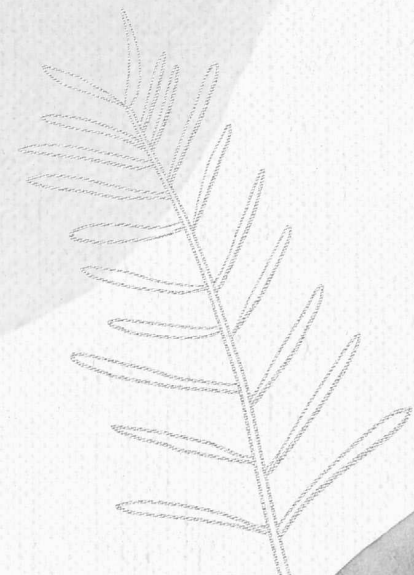
## 차례

말라기 1:1~14

말라기 2:1-17

말라기 3:1-18

말라기 4:1~6





1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1:1-14

1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

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을 받겠느냐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2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 짐승 때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1-5)

저자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하는 말라기는 ‘나(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때는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등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가운

데 국가적인 기쁨과 종교적인 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꿈꾸며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자 다양한 국가로 흩어져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난과 아픔, 눈물의 역사는 깨끗하게 지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위상을 온 세상에 펼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힘 있는 나라의 모습은 쉽게 그려지지 않았고, 폐허가 된 땅과 무너진 성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 땅이 급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였지만 아직은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치권만 인정받았을 뿐 바사의 식민지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제약은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공격과 약탈에 불안함이 멈추지 않았고, 황폐화된 농지와 경제 제반 시설들의 미비는 생각보다 큰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이 종교적 실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마음 다했던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이전에 행하던 악습들이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게 된 말라기 선지자는 무감각해진 신앙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1)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항상 꾸지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꾸중은 평상시에 잘 행동하는 학생들이 듣고, 문제 학생들은 꾸중 듣는 시간에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훈계할 때 책임감 있는 아이는 부모의 훈계를 가슴에 새기지만, 말썽부리는 아이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 부서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이미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들어야 할 아이들은 설교 말미에 오거나 반별 공부 시간에 도착하니 들려줄 수 없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 역시 평소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던 이들이 들었을 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배가 무너지며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가는 세대이지만, 귀 있는 자들이라도 혼탁한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규가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속 이스라엘의 영적 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 올리시는 경중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고에 이어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스라엘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아굽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아굽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생생한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사랑의 근거와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이스라엘은 조건적 사랑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당장의 힘든 현실로 인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반문하는 이스라엘의 너무 먼 사랑의 간극은 말라기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반문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주십니다. 본문 2절 중반부터 3절입니다.

(2b-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아굽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아굽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하나님께서서는 에서가 야곱의 형임에도 동생인 야곱을 사랑 하셨습니다. 당시 장자를 가문의 후계로 삼던 전통을 깨뜨리시고 야곱의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야곱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며,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어긋난 관계로 인해 삶이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긋난 관계에서 대개는 더 성숙한 사람이 애달음을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이 어긋나면 자식은 금세 잊어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가슴을 움켜쥐게 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돈이 다 떨어지고 배고픔에 배를 움켜쥐게 되자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들고 나간 이후로 끊임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진 관계로 인해 가슴앓이 하는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듯 하다면 한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가슴 앓는 심정의

로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 제사장들의 심각한 죄(6-14)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처럼 멀어지게 된 원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죄악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보다 교우님들이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교우님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만, 목회자들은 그 말씀의 내용과 설교자의 설교법을 평가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교우님들은 자신의 사랑 없음을 한탄하지만, 목회자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자신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교회 물건을 사용하거나

예산을 쓸 때도 교우님들은 정말 절약하고 아끼는 것을 보지만, 목회자들은 자기 돈이거나 자기 집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며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영적인 안일함에 젖은 결과로 낮부끄러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 안일했으며, 그 안일함이 이스라엘의 제사와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안일한 제사는 어쩌다 저지른 단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부적절한 제물로 제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이지만 제사가 형식이 되었습니다. 정석대로 가는 것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려 불태우는 짐승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사 제물로 사용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과 경제논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



나눔이 아닌 것이 자리하자, 부끄러운 일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형식에 그친 신앙, 그저 행위만으로 머물러버린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며 여호와와의 식탁을 경멸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외형적 모습은 잘 믿는 것 같고 봉사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외형화만 멋지게 꾸미는 것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면화와 외형화가 함께 어우러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24입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본문 10절과 13절입니다.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참된 제사는 내 삶을 그대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열납 되는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도 좋을지 이 아침에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되기 위해 오늘의 제사장 된 나는 어떤 제물로 드러져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나를 희생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평화하시고, 살을 맞대는 가족들에게 따뜻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제사의 제물이 온전히 불태워지듯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영혼이 다시 살며 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은 잊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온전히 깨어 하나님 아버지 품이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무너짐으로 흔탁해져 가는 세상에서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영적인 기대와 소망이 깨져 실패하고 낙심했던 경험들을 떠올려봅시다. 그 경험이 나에게 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2.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반응해야 할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3. 제사를 멸시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4.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나의 모습을 기도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아서는 하루가 되도록 결단합시다.

2

#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1-17

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 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 하였음이라 3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 우리는 한 아

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13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7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함이니라

말라기는 여섯 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예언들입니다. 말라기 2장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2:9까 지인데 1:6부터 이어진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10-16절까 지이고, 네 번째 예언은 3장으로 연결되는데 첫 번째 구절인 17 절이 있습니다.

### 너희 제사장들아(1-9)

1-9절은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1:6-14에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총독조차 거절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 병든 것, 흠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한 제사장들에게 저주의 경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때를 알립니다.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내렸음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저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저주를 무시했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사장에게 저주를 내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에도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행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3가지를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저주의 내용이 3절입니다.

(3)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는 후손을 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원어 문자적으로는 ‘팔을 자른다’인데 의역하면 ‘제사장들이 누리는 사회적 권세와 능력이 상실되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으로 제사장들이 절



기의 희생의 동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합니다. 절기의 희생의 동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배설물을 뜻합니다.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 짐승의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진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짐승의 배설물이 제사장의 얼굴에 뿌려진다고 하니 처참한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는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배설물이 진 밖에서 불태워지듯이 제사장들이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내버려지고 태워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지속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율법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이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고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사답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제사장들을 저주하여 벌하시더라도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제사장을 벌하실지언정 제사와 제사의 직분이 사라지

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을 받은 직분자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 직분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예배는 영원히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불경스럽게 하는 자들이 사라져야 하지 예배는 영원해야 합니다.

(5-6)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기에 사라져야 할 언약이 결코 아닙니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범죄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레위의 언약은 영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기에 이 언약은 영원

히 존속되어야 할 언약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은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백성에게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8-9)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옳은 길에 서 있지 못하니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거역하게 하는 인도자가 된 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니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곧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악행이며 나아가 자신을 패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10-16)

10-16절까지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언이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이었다면 세 번째 예언은 택함을 받은 백성의 타락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 서로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서로 거짓을 행함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언약의 체결 주체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로 곧 죄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11절에 나옵니다.

(11)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백성이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기록해야 할 것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곧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일입니다. 이방 딸과 결혼했다고 하지 않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금기 사항이 아니라 이방 신을 따르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가증한 일입니다. 기록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기록하지 못한 삶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를 1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아굽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서 제거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13-16)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백성의 또 다른 죄악은 13절에 있듯이 다른 사람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자아내게 한 일입니다. 이는 남편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학대하며 괴롭히는 악행이라고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아내를 짝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며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만나게 해 주신 짝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 두 사람의 서약입니다. 그러므로 그 서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내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진실함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서약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자손이 경건한 자손이 됩니다(15절).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아내를 학대하고 옷으로 그것을 가리는 것도 미워하십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학대와 이혼은 거짓 행위입

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악행입니다.

###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17)

(17)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함이니라

17절은 3장으로 이어지는 네 번째 예언 첫 구절입니다. 백성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고 하니 백성의 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를 끌려가 피지배민으로 살다가 주전 537년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본향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만에 어렵게 성전을 완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귀환 후 약 100년이 지났지만, 메시아가 오시지 않자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더디 온다고 해서 세상을 좇아 살아간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만인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한 날 보내십시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물과 제사장과 봉헌자가 타락했다고 해서 제사와 제사장의 직무가 사라져야 할 이유가 없듯이 오늘날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와 예배자가 타락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와 예배가 사라질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저희의 언약이 되어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제사장, 레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제사장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경고를 하셨습니까?
2. 비록 제사장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레위(제사장)와 세운 언약을 항상 있게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제사장의 입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만인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입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결혼은 하나님 앞의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짝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부간 금기사항은 무엇입니까?(14, 15, 16절 반복적인 내용 참고)
5.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신앙공동체에서 나에게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요소는 무엇이며, 버려야 할 행태는 무엇입니까?

# 3

##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가리라

말라기 3:1-18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  
 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  
 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  
 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  
 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 너희 땅이 아  
 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3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  
 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  
 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 지금 우리는 교만  
 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  
 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  
 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 주의 사자를 보내심(1-6)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  
 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약 70년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삶과 신앙은 전혀 재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도 넘게 지났지만,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 나타난 선지자가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온전한 것이어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성전에서 파는 온전하지 못한 짐승도 받아주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당시 백성의 삶과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 드렸느냐며 발뺌만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보여줍니다. 1-6절은 주의 사자가 와서 주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실 것에 대해 증거합니다.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두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입니다. ‘내 사자’가 히브리어로 ‘말라키’인데, 1:1의 ‘말라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1:1은 고유명사로 번역하여 소리 나는 대로 ‘말라키’라고 했고, 본문은 보통명사로 번역하여 ‘내 사자’라고 했습니다. 내 사자가 하는 일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에서 ‘내 사자’로 성취된 인물이 ‘세례자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일반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그냥 가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국가원수급의 인물이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있을 때, 그 레스토랑에 2주 전부터 매일 경호원들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샅샅이 점검하고 준비하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앞두고는 수개월 전부터, 어떤 때는 수년 전부터 왕이 가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가 구하는바’가 되시고, ‘너희가 사모하는바’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리게 된

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2-3)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비  
유적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사람의 불과 표백하  
는 사람의 잿물에 비유합니다. 광산에서 금과 은을 캐내었다고  
해도 100% 금과 은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갖 불순물  
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녹이면, 거기에서 금과  
은만을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또 옷에 얼룩이 묻으면 물로 빨았다고 해서 얼룩이 사라지  
지 않습니다. 양잿물에 푹 삶아서 방망이로 두드려야 얼룩이 빠  
집니다. 언약의 사자는 금과 은을 제련하듯, 자기 백성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잿물로 얼룩을 제거하듯, 오염된 자기 백성  
을 정화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심판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삶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점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신접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영적이지만, 신접한 사람의 말은 가볍고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품꾼의 삶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 십일조를 도둑질 함(7-12)

7-1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 지키지 않았던 십일조와 헌물 규례 위반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다 백성의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백성은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라고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배)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규례(말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은 ‘급성 떠남’이 아니라 ‘만성 떠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 있어도 떠나 있었던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8-9)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유다를 지탱하는 두 영적인 기둥은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직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라면, 제사장직은

일상적인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감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제사 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첫 십일조는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으로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바쳤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야곱도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무사히 돌아올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셔야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와 헌물, 헌금을 드림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음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집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재물이 탐나시고, 짐승과 곡식이 탐나서서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바침이 그들에게 더 큰 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토지소산에 결실이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탐스럽게 열림은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막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막아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의 청지기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주를 대적함과 경외함(13-18)

13-18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한 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3-14)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라는 뜻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유다 백성은 하지 말아야 할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령이 살아 있어서 그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심이 굳어서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며 화를 냅니다. 화단이 가장 망가진 상태는 땅이 완전히 굳어 있어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16-18)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한곳에 모아 놓

고, 마음이 힘들 때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대한 두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은 누리려는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물줄기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물줄기입니다. 이 두 물줄기가 거칠게 흘러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물줄기가 더 크고 강하기에 세속적인 인간의 물줄기를 덮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시는 한 날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몽니를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 주실 것이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금과 은을 제련하듯이 정화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전노 영감과 같으신 분이 아니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총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는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언약의 사자(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만난 ‘내 사자(세례자 요한)’와 같은 분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해 주셨습니까?
2.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 그들은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떠나 있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어떻게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3. 당신의 지난 삶에서 당신이 살았던 삶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4

#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4:1-6

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은 말라기 선지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면 본문에서는 그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로 묘사합니다. 그



날이 오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가 용광로 불같은 것에 타버리듯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져 버릴 것이지만,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심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 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을 건축한 지 70년 만에 무너진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자신은 스스로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했기에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서 곳곳에 보면 오리발 내미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반문하고,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는데 더러운 제물을 바쳤다 하면 언제 우리가 더러운 제물을 바쳤습니까 항변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반문하고, 돌아오라 하면 언제 우리가 나갔다고 돌아오라 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계시지만, 실은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학수고대하며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방점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의 방점은 무서운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한결같이 그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본래 강박하고 완악했습니다. 죄의 본성 그대로 놔두면 죄의 샅은 사망이기에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의 본성인 강박함과 완악함을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는데 그날에 모든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자신이 교만한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서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6b)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7a)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2:17a)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3:8a)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3:13)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잘못을 알려주시면 깨닫고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기 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시지만, 각자 처한 상황 따라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임하시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로 임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치료자로 역사하십니다.

지구를 비추는 태양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지만, 그 태양이 어떤 지역에서는 밀림을 이루게 하고 어떤 지역은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사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밀림을 비춘 태양은 왕성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밀림을 만들고, 사막을 비춘 태양은 모래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게도 만듭니다. 똑같은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도 하고 파괴하는 광선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태양을 비추었지만,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의 상태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고후 2: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포로를 끌고 오면서 시민들에게 전쟁에서 이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개선행렬대 안에 향을 피웠습니다. 피어나는 연기로 개선행진을 만방에 알리는 효과도 있었지만, 개선행렬에 참여한 군인과 시민에게 향냄새는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그러나 끌려오는 포로에게는 죽음의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상징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와 날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날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4절 이하입니다.

(4-6)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안 되려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돌이키게 한다는 말은 회개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을 지적받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집 나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품어주듯이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거대한 두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은 누리려는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물줄기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물줄기입니다. 인간의 물줄기와 하나님의 물줄기가 경쟁하듯이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물줄기가 더 크고 위대하기에 세속적인 인간의 물줄기를 덮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말라기 선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속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400년 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으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은총의 자리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뜨거운 태양이 죽음의 사막을 만들기도 하고, 생명의 밀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호와와 날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용광로 불같은 날로 임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회복과 치유의 날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생명을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묵상을 돕는 질문

1.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을 짓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2.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3.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4.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과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